

표지 디자인: 마리 플래니건

스테인드글라스: 세인트 앤 성당, 세인트 요아힘 예배  
플로리다 나폴리 예배당. 허가 받아 사용.

# 마리아 견진성사 의 동반자

폴 **E.** 크랜리

온전히 당신의 것인  
마리아님,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무료 사본:

<https://mailchi.mp/marianconfirmationcompanion/mc>  
c-pdf **ISBN**

인쇄 출판 허가&  
갤버스턴-휴스턴의  
다니엘 디나르도 추기경  
허가

**2023년 5월 16일**

978-1-7377607-0-2

저작권 © 2021 폴 E. 크랜리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1894-1941)

“우리의 목적은 성모님을 위해 세상을 쟁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하는 것이다”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1905-1938)

“영혼의 진정한 위대함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현존 안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 겸손한 자들만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언제나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

## 성 요한 바오르 2세(1920-2005)

“원죄 없으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봉헌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는 이 세상을 꿰뚫은 구세주의 마음에 봉헌하여 구원의 근원으로 돌려준다는 뜻이다.”

### 목차

<u>제목</u>	<u>페이지</u>
머리말	1.
1주차. 수태고지	14.
2주차. 방문	18.
3주차. 예수의 탄생	23.
4주차. 그리스도의 봉헌	28.
5주차. 성전에서 예수님 찾기	33.
6주차. 예수의 세례	38.
7주차. 가나의 결혼식	43.
8주차. 왕국의 선언	48.
9주차. 변형	53.

10주차. 만찬	58.
11주차. 동산에서의 고뇌	64.
12주차.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69.
13주차.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74.
14주차. 십자가를 지고 계신	78.
15주차. 십자가 못박히심	83.
16주차. 부활	89.
17주차. 천국으로의 승천	95.
18주차. 성령의 강림	101.
19주차. 성모 승천	107.
20주차. 하늘의 모후님 마리아의 대관	112.
봉헌의 날	118.
작별	119.
부록	122.
참고 문헌	137.
감사의 말	140.
저자 소개	141.
목주 기도	145.
목주 다이어그램	147.

# 머리말

## 목적(사명)

세상이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모든 조직이 유대 그리스도적 전통과 도덕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파멸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앙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천주교 신자, 성체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존재를 믿는 분, 가톨릭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태어난 아기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신앙을 품은 청년들의 수가 모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우리 청년들이 집을 떠나 신이교주의 암흑에 들어가기 전에 진정한 가톨릭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진성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향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가 다음과 같은 답을 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하는 것이다.”(1) 이 책은 성 막시밀리아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려는 의도입니다.

가톨릭 견진성사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실에서 진행되고 다른 하나는 후견인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20년간 고등학교 청소년부와 함께 하면서 후견인이 건전한 신앙습관을 통해 우리 가톨릭 신앙을 살리는데 이들의 후보자를 어떻게 멘토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책은 견진성사 후보자와 후견인이 하늘어머니를 이 과정에 초대하여 신성한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함께 묵주기도를 배우고 묵주기도에서 성서의 진리를 이해하며, 마리아 봉헌의 원칙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성모 마리아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가톨릭 신앙이 살아나 평생 지속되려면 첫째,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과 둘째, 가장 큰 두 계명의 완벽한 본보기인 ‘성모마리아의 성스러운 마음’에 대한 사랑을 본받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성모 마리아는 우리 개인의

스승이자 벗이 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수많은 신의 은총을 받고 견진성사의 성례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 예수님께 바치는 마리아의 봉헌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선교사의 일을 지시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40). 예수님의 어머니와 양아버지인 성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 요셉은 처음 경험한 진리를 12사도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 요셉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 요셉의 마리아 축복 비결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더러,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3년 간 이집트에 숨어 예수와 마리아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그는 평생 이 일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후견인과 함께 견진성사의 성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20주 동안 수많은 신약 성도들이 마음 또는 안식처에서 처음 마리아를 영접한 후 예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한 이야기를 배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체험하고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 봉헌이라 일컫는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봉헌은 성모 마리아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통적인 가톨릭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늘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봉헌은 우리가 매일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매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바치는 마리아의 봉헌은 어머니의 완벽한 모성애를 통해 우리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라! 마리아님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리아님께

봉헌하라. 마리아님이 우리 대신 해주신 것처럼 특히 마리아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는 힘을 다하라.”

## 우리의 목적 명심하기

우리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칠까요?

첫째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지상에서 태어난 모든 영혼이 다음 세상인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희생적인 모성애에 완전히 침례를 베풀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먼저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도록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제 2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데 있어 노련하십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또한 “하느님을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하여라”라는 제 1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40) 그러므로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2)

지상의 어머니로부터 배우려는 우리의 의욕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하늘어머니에게 배우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사랑은 가장 큰 두 계명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데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만큼 더 좋은 본보기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길”을 고안하고 고집하십니다. 어머니의 친밀하고 희생적인 공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시다!

첫 번째 어머니인 이브는 아담의 “배필”로 태어났습니다. 이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아담이 새 생명을 창조하도록 돕고, 이들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엄마는 첫 번째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탄이 이브를 먼저 공격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어머니 마리아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완벽한 희생적 사랑을 통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를 어머니의 “모성의 중재”라고 부릅니다. (7)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 때문에 이브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창조된 하느님의 완벽한 시녀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느님은 젊은 처녀 마리아 즉, 하느님의 새로운 이브를 통해 그의 외아들을 새 아담으로서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계획에 대해 기꺼이 “네”라고 대답했고 우리 모두에게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8)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동반자이자 개인 스승이 되어 우리를 견진성사에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우리에게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범으로 주셨으니, 매일 “예”라는 응답을 드리자.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완벽하게 성장하려면 안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 갈 때는 마리아를 통해 함께 걸어가라.” (3)

## 가장 거룩한 목주

자녀는 어머니의 반복적이고 온화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랑을 배웁니다: 즉,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다정한 사랑의 말이나 사랑을 보여주는 다정한 행동입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본받음으로써

다른 이를 사랑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높여줍니다: 어머니의 애정 어린 시선,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 그리고 노래조차 말이죠. 자녀는 듣고 어머니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마침내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반복적이면서 인내심 있는 행동을 통해 자녀는 서서히 어머니의 애정 깊은 마음을 모방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의 반복은 배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자녀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더 능숙해지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분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마태복음 7:12)

어머니가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를 자녀가 그 말을 제대로 반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는 또한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언어로 말하고 목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성경 속의 말씀이나 명상을 통해 하느님과 소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목주를 “복음서 전체 개요”라고 부릅니다. (4) 20가지 신비는 신약성경의 첫 네 권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대 복음서 저자의 시각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생애를 숙고할 수 있게 합니다. 각 신비마다 성모송(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인사라고 함)을 열 번 암송하면, 마치 리듬이 노래에 우리를 실어 나르듯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모마리아 기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4) 성모마리아는 다정하고 때 묻지 않은 마음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주의 신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마리아를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마리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에 마리아는 성 도미니크와 성 시몬

스톡에게 해당 목주의 기도를 기적적으로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성 도미니크에게 목주의 기도 없이는 영혼을 회심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발현 속에서 이를 계속 긍정하고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이를 암송하고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목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단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사랑의 선물로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를 깊이 사랑하고, 많은 길 잃은 아이들을 개심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목주가 필요합니다.

성 요한 바오르 2세는 기도와 희생을 결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희생과 합심한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이다.”

(5) 이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목주를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합심한 기도이기도 한 미사 다음으로 목주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목주를 빌 때, 우리는 잡념에 매우 산만해질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하고 있는 불명확한 것에서 마음을 되돌리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주가 끝나면, 성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

앞으로 20주 동안 우리는 견진성사 후견인이나 가족과 함께 매일 최소한 10번 목주를 소리내어 기도하는 희생을 치르길 부탁드립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할 때 성령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이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충실함을 강화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을 지도해 줍니다. 후견인과 직접 얼굴을 맞대어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주와 명상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로 이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견진성사의 날에 이 기도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부록에 있는 목주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15가지 약속을 읽으십시오.

## 성 요셉의 묵송(默誦) 마리아의 축복

성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즉시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큰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꿈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마리아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느님과 마리아를 향한 큰 힘, 사랑,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보답으로 요셉은 평생을 거쳐 천국으로 향하는 영적인 여행에서 훌륭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마음과 가정에 들어온 후, 성 요셉은 하느님과 만날 때 신성한 어린 아들인 임마누엘로써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베들레헬까지 백 마일의 여행, 기적의 별의 인도, 소들의 쉼터로 사용되던 동굴에서의 탄생, 가난한 목자와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의 환영, 이 자녀가 진정 누구인지 참모습을 하늘이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그런 모든 일에 매우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후 헤롯 왕이 그들의 아이를 죽이려 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 마리아를 이집트로 데려가라는 대천사의 말을 들은 후 그는 다시 한 번 큰 용기와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이민 목수로서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3년 후 천사는 그에게 집에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정을 가지고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부양했습니다.

아마도 성 요셉은 3년 동안 헤롯으로부터 가족을 피신시킨 뒤, 자신의 아이의 신성한 정체를 비밀로 하기 위해 남은 여생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성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의 말씀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위대한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그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했지만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 요셉의 묵송 마리아의 축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그의 마음과 가정에 데려온 후, 성 요셉은 놀랄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경험은 나중에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뒷받침되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40)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 요셉도 마리아도 평생 동안 성적으로 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성 요셉의 경험은 어느 시대나 남편의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아들인 후,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 고대에서는 아이의 성별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출생 시기는 항상 놀라웠습니다. 새 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이 아이를 내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동의합니다. 그의 아내도 이 아이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브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처럼, 그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적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세기 4:1) 하느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부부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남편이 새 아내를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하고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음의 이 성경 구절을 돌이켜보고 보편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복음 1:23)

앞으로 20주 동안 성 요셉이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한 후 성 요셉의 목송 마리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예를 보여주는 신약성경의 성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녀 엘리사벳, 그녀의 아이인 세례자 성 요한과 남편 자카리아스, 베들레헴의 목자들, 동방박사, 집 성전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 가나 혼인잔치, 베타니아의 마리아(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언니 마르타, 그녀의 오빠 라자로, 성모 마리아의 여동생 마리아, 엠마오에 향하는 두 제자, 그리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부활절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로, 오순절 일요일에는 성령의 바람과 불꽃으로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또한 산 정상에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 예수님이 변형될 때 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사도들은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나타났으며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금요일에 성녀 베로니카와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은 슬프게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으로 모신 모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이는 바로 마리아 자신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가정과 마음으로 맞이하고 하느님의 사자에게 "네"라고 답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 요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배필부터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우리의 마음과 가정으로 초대해 줄 것을 바라십니다. 이 위대한 마리아의 축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는 항상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며, 항상 하늘로부터 새로운 신성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장 큰 칭호가 “신의 어머니 마리아”인 이유이며, 그녀는 이 가정적인 환대의 덕을 통해 마음속에 품은 하느님을 모든 인간적인 애정 관계에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가정과 마음에 항상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 요셉이 그의 배필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랄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때 성 요셉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체험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하세요. 이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엠마누엘! 견신성사를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세요:

성 요셉이여, 당신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곧 갓 태어난 갓난 아들 예수로서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를 제 마음과 가정으로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삶에서 하느님을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성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아멘.

마리아 봉헌의 자연적이고 영적인 논리



- ♣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 자연스럽게 능한 이유는 자녀는 여러 면에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어머니 안에서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녀의 자녀와 이렇게 유일무이하고 개인적인 사랑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서 어머니는 제2 계명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의 가장 큰 스승이십니다 (6, #1954-1960)
- ♣ 어머니는 온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체내에서 완전히 형성될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 9개월 동안 어머니는 아이와 마음의 일체감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9개월 동안 어머니는 온 마음과 목숨을 비롯하여 온 몸으로 온전히 쏟아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어머니는 온 마음과 목숨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어머니에게 자녀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당연하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가복음 9:37)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는 제1 계명의 가장 숙련된 스승이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 ♣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대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40)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누가복음 10:28) 이처럼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모두가 영생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선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천주교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간추리고 하느님의 모든 뜻을 나타낸다.” (6, #2822)

♣ 이러한 모성애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하느님이 아담의 '배필'로 이브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지상에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가족에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는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르 2세는 "남자는 마음의 합일을 향해 전진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여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7) 이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끊어지는 숨결과 함께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브로서 마리아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대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 자비, 진리와 아름다움의 세례를 받고 각 영혼이 은혜를 입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진정한 고향과 진정한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이를 알고, 미워하고 감추려 합니다!

♣ 악마는 이 계획을 알고 있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태어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붉은 용에 묘사된 것처럼 모성애에 대한 공격 하나 하나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1-6) 우리 교회가 비난해온 온갖 사회악을 보고 저마다 모성, 부성, 그리고 가족을 통해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 과정에 대한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대계명을 어머니의 마음 속에,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는 성모 마리아의 마음 속에 두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하고 어머니에게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마리아 봉헌의 본질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머니가 되도록 매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큰 겸손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봉헌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가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하듯이 마리아와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엄마와 아이의 마음의 일치는 출산 후 수년간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아이의 온몸에 마음의 일치를 물리적으로 각인시키십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 성녀 마더 테레사에 의한 성모 마리아 봉헌은 이 마음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마음을 바치고, 마리아는 우리에게 때 묻지 않은 마음을 줍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일을 두 가지 매우 간단한 기도로 표현합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을 빌려주소서."와 "마리아여, 당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 속에 나를 지켜주소서." 그 성인은 마리아의 의무의 목록(부록 참조)에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마리아 내면의 삶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1)
- ♣ 주님은 항상 '그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와 마음을 합칠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심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녀를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될 이 놀라운 선물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9)

## 마리아를 통해 예수에게 헌신하기: 20주 계획

이 계획은 교구 기반의 견진성사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독자 분과 독자 후견인은 후견인 및/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묵주를 소리내어 기도하되, 20가지 묵주 각각에 1주일을 할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나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나보십시오. 매주 1회 묵상하며, 묵주의 신비 하나와 계명 하나에 대해 명상하고 제안된 질문에 대해 후견인과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매주 마리아 봉헌의 원칙을 소개하고 숙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해당 서론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베 마리아에서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비의 4가지 세트 각각에 대해, 4

가지 다른 봉헌의 기도를 사용하여 매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이로써 성모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독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즉시 갖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성실한 후보자와 후견인이 견진성사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활기차고 성숙한 가톨릭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례 약속의 갱신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약속을 새롭게 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자신과 예수님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진성사에서 주교와 함께 실시합니다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리아님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 최초의 서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모 마리아에게 온 마음을 바치고,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의식에 대해 매일 희생 규율에 순종할 것을 아래와 같이 맹세합니다. 귀하의 책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는 성모 마리아와 자신에 대한 맹세입니다.

저, \_\_\_\_\_는 성모 마리아에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5주간 후견인, 가족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묵주의 각 수업을 충실히 배우고, 매일 일련의 묵주를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이 나를 사랑했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노트:

## 1주 차

###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 겸손 (10)

**설정:**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것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누가복음. 1:26-38)

**성찰:**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십시오! 천사가 물으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을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40) 마리아는 대천사의 방문을 받아들였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님의 태내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느님을 마음으로 받들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느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녀 예수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견진성사의 여정을 시작할 때 마리아님을 우리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하면, 마리아님은 예수님도 함께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마리아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이는 함께 살기 전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남기로 맹세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7) 교회는 또한 어머니의 태내에 잉태된 그날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데 응했습니다. 이는 매우 정결하고 신성한 결혼이었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과 그의 사명에 완전히 몸을 바쳤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돌보는 예수의 형제가 있었다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의 보호 아래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인용된 '예수의 형제'는 실제로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7)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저런 그녀의 구원자이십니다.

성 요한 바오르 2세는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행동은 분명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메시아의 도래를 고지받았다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대제사도, 히브리 종교의



공식 대표자도 아니며, 남성도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7) 성령의 놀라운 본질은 하느님의 사랑의 명백한 징후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19장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원칙: 마리아를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합니다. 성령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성 요셉 묵송 마리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 요셉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대천사의 지시로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한 후, 그는 곧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어린 아들로써 만났습니다! 신전도 아니고 산도 아닌 그들 자신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하듯 마리아를 사랑하고, 당신의 마음과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를 당신의 마음에 밝혀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리아는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라고 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인생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견진성사 준비 중에 하느님께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예'라고 말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스승으로서, 또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40) 마리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증인:

1.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누구보다 먼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느님 자신이 나사렛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녀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9)
2. 성 프란시스 드 살레 (1567-1622)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배우고, 배울 것은 배우는 것이고,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배우고, 사랑하는 일은 사랑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1)

3.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성스러운 묵주는 우리를 신앙의 마음 속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묵주에 마음을 집중하여 기쁨으로 하느님의 성모님께 거듭 인사하고, 그녀의 태내에 달콤한 열매인 아들을 축복하며, 삶과 죽음에서 어머니로서의 보호를 기원한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마리아는 하느님에게 큰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신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마리아의 겸손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서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금주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마태복음 22:37-38). 제1 계명에 대해서는 3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 일곱 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전체는 이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 어렸을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부모님께 배웁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우리를 돕는 데 성공했을 때, 우리는 이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님, 부디 이 계명을 항상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7)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한 후에 이 진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선물로 매일 목주를 바칩니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다섯 가지 기쁨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아침 기도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44) 성모 마리아님, 저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 2주차

### 방문

마리아는 임신 중인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웃사랑

**(10) 성경:**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네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마리아의 노래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느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홀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 주셨네.

굽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1:39-56)

**성찰:**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마리아는 곧 소명의 여행을 시작하여 먼저 성 엘리사벳에게 그녀의 아들을 알리고 나누었습니다. 이는 기쁨의 신비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향한 네 번의 여행 중 첫 번째 여행이며,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의 아버지에게 바치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는 우리를 운명과 영원한 보상으로 인도해 줍니다. 마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나이 드신 사촌을 위해 약 100마일을 여행하며 3개월간 자선 활동을 함으로써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 위한 첫걸음은 자선활동을 통해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 성경에는 마리아가 '급하게'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봉사하며 자비로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든 사촌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또한 자신의 좋은 소식과 새로운 사랑을 전하며 마리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의 본성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자신의 가정과 마음속에 맞이하였고 갑자기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녀와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녀의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기쁨에 뛰었습니다. 그녀는 서문에서 기술된 것처럼 성 요셉이 경험한 마리아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성령이 마음에 오신 것을 느끼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내에서 뛰어오르는 것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인 자카리아스도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성 요셉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내에 계신 동안 말할 수 없었던 자카리아스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엘리사벳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례자 요한과 남편 자카리아스를 위해서도 성령의 사역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마리아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회개를 호소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갖춘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3) "나의 허물을 죄다 씻어 죄에서 씻으십시오." (시편 51:2)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성인이 되었고 예수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대략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위대합니다." (마태복음 11:11)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사도들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도록 대비시켰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2)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한 성자이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요한은 결국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지난 3개월의 방문 기간 동안 마리아와 성 엘리사벳은 하늘로부터의 이 기적적인 징후들을 꼼꼼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령 하느님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하느님은 종종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동반자를 부여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하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후견인과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어머니가 함께 모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지시한 것을 따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봉헌의 원칙: 아침 일찍 매일의 기도, 일, 기쁨, 고통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바칩니다. 마리아가 성 엘리사벳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루이마리 그리그농 드 몽포르 (1673-1716) “성령께서 마리아의 비밀을 밝히고 마리아를 알게 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3)
2. 성 알폰소 리구오리 (1696-1787) “내 자애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라고 성모는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애는 하느님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3)
3. 교황 베네딕토 16세 (1927-2020) “목주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모범인 마리아에게 이끌려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동화시키는 것을 도우며 이는 우리의 삶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3개월에 걸친 자비의 행위는 마리아의 자비, 사랑, 연민의 좋은 예입니다. 또한 출산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익한 지식도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마리아 안에 계시고,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 마리아 파우스티나에게 나타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자비의 행위를 요구한다. 이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생기는 것이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너는 이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42)

금주의 계명: 두 번째 [대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 39-40) 서문과 1주차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한 두 가지 '대계명'을 가르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도 마리아가

이 두 대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완벽한 모범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발현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옛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창조하신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머니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결정하신 것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계시지만 마리아 봉헌의 자연적이고 영적인 논리 서문에서 논했듯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계획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모든 아이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 영원토록 천국으로 안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마리아의 태내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에게 화답하여 어머니의 태내에서 뛰어노는 요한은 생명은 잉태에서 비롯되고, 무고한 태아는 모두 진정한 인간이며, 낙태라는 악에서 지켜질 필요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선물로 매일 목주를 바칩니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다섯 가지 기쁨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아침기도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44) 성모 마리아님, 저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노트:

## 3주차

### 예수의 탄생

성령의 열매: 영혼의 빈곤 (10)

**성경:**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나 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중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날이 왔다.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굿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느님을 찬송하였다.

**목자의 방문.**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이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누가복음 2:3-20)

\*장자: 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속권에 관련된 법률 용어. (신명기 21:15-17)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자녀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전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6,#500)

**성찰:**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17). 하느님은 가족과 함께 구약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새로운 가족, 성가족과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이 가족은 진정한 가족의 모범이자 정의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성도가 되어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하느님께서 새 생명을 이끌어내기 만드신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탄생은 74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이사야 7:14) 폴턴 쉰 주교에 따르면, 다른 세계 종교 지도자는 아무도 사전에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 이 일은 신전이나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고향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7)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을 뜻하며, 소먹이통에서 잠자던 아이는 생명의 빵, 즉 하늘에서 온 새로운 '만나'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족 안에, 가정 안에 계십니다. 설령 그 집이 흙바닥의 냄새가 나는 동굴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가정으로 맞이하였을 때처럼 하느님을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초대하십시오. 이날 밤 요셉은 그분을 갓난아기로서 아들로써 그리고 주 하느님으로서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의 마음과 검소한 거처로 맞아들였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도 만났습니다. 그 후 현자들은 마리아의 마음과 가정으로 환영을 받았고, 그들 또한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신성한 왕이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현명하든 무지하든, 성에 살든, 별하늘 아래 산비탈에 살거나, 하느님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이 마을은 베들레헴, 다윗 왕(양치기 소년으로 시작된 왕)의 고향입니다. 그는 통치 중 언약궤(마리아의 상징)를 예루살렘으로

영접하기 위해 그 상자 앞에서 춤을 춘 왕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가정에도 성가족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동족들로부터 성가족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11) (41) 그래서 다윗 왕의 사자들을 겸손한 목자에게 보내어 다윗 왕이 성가족을 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강림절에 마음과 가정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결국, 이는 성모 마리아가 한 일입니다. 그녀는 순결 서약을 하여 자궁에 '빈 공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봉헌의 원칙:** 마리아의 환대의 미덕을 본받읍시다. 성 요셉이 매일 경험했던 마리아의 은총은 사실 마리아의 환대의 자선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 있고 마리아 안에 계시며, 마리아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마리아를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항상 주십니다. 환대는 방문자를 위해 행해지는 사랑스러운 인간의 행위이며, 신의 은총에 의해 완성되는 미덕입니다. 환대는 아브라함이 마르레의 천막에 있는 동안 자신을 방문했던 3명의 천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기 18:1-10)

대신 이 방문객들이 1년 후 돌아왔을 때 당시 90세였던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봉헌된다면 항상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마리아의 은혜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대를 보여주는 상대는 우리의 선의의 노력 덕분에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2)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터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18) 모든 덕목이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40)

성도들의 증인:

1.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마리아를 우리의 가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실 우리는 마리아를 우리 삶의 터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애정, 우리의 일에 대한 완전한 칭호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마리아가 본래 갖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즉 조연자, 권고자, 혹은 강인함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침묵의 존재마저도 인지해야 한다.” (19)
2. 성 막시밀리안 콜베 (1894-1941) “오, 성모님, 천지여왕, 죄인들의 피난처이자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 하느님은 자비의 질서 전체를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20)
3.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1912-1978) “간단하고 쉬운 기도인 묵주는 내가 어린아이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마리아와 성 요셉은 안식처를 찾을 때 큰 인내와 끈기를 보였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있던 마리아가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초라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목자들과 3명의 왕들을 환대했습니다.

금주의 계명: 모세에게 주어진 첫 계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느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1-3) 거짓된 하느님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장소, 물건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대신 이웃에게 의지하면 이웃을 거짓된 하느님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께 의지하고, 다음으로 친구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두 분을 도와주는지 친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마를 섬김으로써 떠맡겨지는 큰 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34) “따라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3)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강림절이나 사순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마음에 드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관습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 카인과 아벨이 각자 손으로 한 일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4:3-7)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빈 공간'을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후견인이나 가족들과 그런 경험을 나누고 논의하세요.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관대함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선물로 매일 묵주를 바칩니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다섯 가지 기쁨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아침기도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친척과 벗의 뜻을 위해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44) 성모 마리아님, 저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 4주차

### 그리스도의 봉헌

성령의 열매: 순종 (10)

성경: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 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뵈옵는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 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느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여든 네 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섬겼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누가복음 2:22-38)

**성찰:** 여호와께 봉헌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 헌신했지만, 이번에는 성전에서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바치고 우리가 진리에 있어 헌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바칩니다. 그들도 진리로 바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7:9) 세례와 견진성사의 결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됩니다. 마리아님은 우리의 개인적 스승이자 영원한 조력자이므로, 이 위대한 새로운 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리아님께 허락을 내려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를 시므온과 안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삶에서 구세주를 찾던 예언자로 갑자기 성전 안에서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갓난아기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아들의 고통을 함께 한다고 예언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모든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또 자녀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지만 이 보편적 진리는 이날 하느님의 성전에서 인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과거에 고통은 쓸모없고, 개인 또는 가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상 희생에 자신의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드리는 구원과 기쁨의 희생적 제물로 삼았습니다. 시므온은 구원의 업에 마리아의 협력을 인정하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7)

안나는 예언자이자 노년의 모든 순간을 성전의 '집'에서 보내며 시므온과 함께 이 아이의 위대한 운명을 확신했습니다. 갓난아기로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놀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으로서 그녀는 남성만큼 성전의 지성소에 가까이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그녀는 차가운 석조 신전에서 수백 명의 신도들과 함께 멀리서 하느님을 숭배했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로 하느님을 가까이서 직접 숭배했습니다. 두려워하도록 배운 하느님의 숭배에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하느님과 노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녀는 이 경험에 매우 감동하여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구세주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전도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예언자들과 견진성사 후견인들 그리고 부모님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존엄과 운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둘 다 마리아를 마음과 신전의 '집'으로 맞아들였고, 이날 두 사람은 각각 예기치 못한 형태로 하느님과 만났습니다. 둘 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실현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둘 다 성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나의 행동은 우물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 한 잔을 드리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4:4-42) 그녀들의 자선은 삶 속에서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둔

사교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은 것을 즉시 만난 사람들 모두와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성 엘리사벳에게 복음을 전한 마리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억 명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족, 지역사회, 교회에 전하는 역사를 통해 실천해 온 세계적인 복음 전도 전통의 시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들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는 본성은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모두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하고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 요셉은 천사로부터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집트에서 숨어 살 때에는 마리아의 열의와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 요셉이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봉헌의 원칙: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본받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시므온과 안나는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그 만남에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그때 그녀는 나아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이들에게 그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우연한 회합에 이끌렸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기쁨 속에 끝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0:31)

성도들의 증인:

1. 성 베르나데트 (1844-1879) "오, 나의 어머니, 내게 행해지도록 하소서! 생명이 내게 주어지도록 하소서!

고통이 내게 행해지도록 하소서! 오, 어머니, 주님의 원죄 없는 마음과 함께 있는 한, 죽음마저 내게 행해지도록 하소서!” (3)

2.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어떻게 생명을 환영하고, 지키고, 장려하며, 전 세계의 고통받는 아이들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고 바라지 않고 기쁨의 신비 속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겠는가?” (22)
3. 성 막시밀리안 콜베 (1894-1941) “나는 이 묵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 이것이 내 생애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부른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100마일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화의 전통을 따르려면 큰 믿음과 충실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금주의 계명: 두 번째 계명: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신명기 5:11)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 즉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6, #2146)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쓸 때는 항상 겸손과 사랑과 경의를 가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다른 이들이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계명을 따르기 위해 성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선물로 매일 묵주를 바칩니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다섯 가지 기쁨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아침기도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친척과 벗의 뜻을 위해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44) 성모 마리아님, 저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 5주차

# 성전에서 예수님 찾기

성령의 열매: 기쁨 (10)

**성경:**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하자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2:41-52)

**성찰:** 우리가 예수의 존재를 잃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곳을 찾기 위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원하시지 성전에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키도 지혜도 더욱 성장해 갔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보고 놀랐다.” 부모님은 놀랍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전에 3일간 머무르라는 명령을

받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서기관이나 사제로 일하라는 소명을 받은 젊은이들이 집을 나와 성전에 살면서 종교 지도자 밑에서 공부할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제 수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지도자들의 놀라움으로 판단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현명하셨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적합한지 시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 지도자들은 놀랄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과 만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하느님과 만남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일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가정집에서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거나 대상(隊商)으로 며칠 동안 여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함께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집과 마음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고 싶어하십니다.

하느님은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의 순례길을 걸어 예수님께 정신적 지주를 드리고 예수님과 젊은 기독교 지역사회 제자 모두에게 모성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분리하여 그녀 없이 신전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함께 이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3일은 예수님의 앞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 표시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자신이 매우 잘 알고 있던 아들을 잃은 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재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택하셨고, 가정 교회의 집에서 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 안에서 성가족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새로운 장,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며 마리아 안에 계십니다. 마리아는 곧 요셉을 잃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 요셉에게는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되는 마지막 소식이지만, 그의 '비밀의 마리아 축복'은 영원히 계속 됩니다. 성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직에 오르기에 충분한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의 정체를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어린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 아들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소년 예수께서는 마리아 봉헌의 중요한 원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 예수님의 생애 여정의 친밀한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어머니도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역대지하 7:16)

봉헌의 원칙: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항상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와 한마음으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3)

성도들의 증인:

1. 성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그리스도로부터 더 많은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3)
2.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희생의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5)
3. 성 요셉 마리아 에스κρι바 (1902-1975) “일련의 주기도문과 성모마리아를 암송하기 전에 서너 초 동안 침묵하고 명상하며 목주의 신비를 성찰해 봅시다. 이 수행으로 명상과 기도의 성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의 두려움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나이에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은 겸허하게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예언해야 합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요한복음 3:30)

금주의 계명: 세 번째 계명: “너희 하느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느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신명기 5:12-14)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요일에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사의 희생을 축하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불우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13) 비굴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피하고 일요일에 불필요한 쇼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2187-8).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주말마다 미사에 충실히 참석하고 있습니까? 학교나 직장 때문에 집을 나설 때도 충실하게 계속 출석합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도와줍니다.

과제: 묵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희생의 기도이기도 하며 성경, 즉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간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기도를 올립니다:

### 다섯 가지 기쁨의 신비를 위한

#### 매일의 봉헌 기도

#### 아침 기도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친척과 벗의 뜻을 위해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44) 성모 마리아님, 저의 신앙을 지켜주소서!



## 두 번째 서약

저, \_\_\_는 성모 마리아에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5주간 후견인, 가족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묵주의 각 수업을 충실히 배우고, 매일 일련의 묵주를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이 나를 사랑했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노트:

## 6주차

### 예수의

### 세례

성령의 열매: 성령에게 개방 (10)

성경: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예언서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구푸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가복음 1:1-8)

예수의 세례.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마가복음 1:9-11)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언.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도 이분을 몰랐으나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튿날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한복음 1:29-37)

**성찰:** 마리아에게 매일 양심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개的重要性和 회개 결과와 그 가르침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결합니다. 회개한 마음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의 문을 엽니다. 세례에서는 우리는 원죄와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씻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을 준비가 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예전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도록 봉사하는, 즉 '길을 갖추는' 사람의 두 번째로 모범적인 예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요한은 사람들을 집과 광야로 불러들여 금식과 기도와 회개를 명했습니다. 요단강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 후 예수님께 인도하여 말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요한복음 3:30) 세례 요한과 성모 마리아는 함께 이 화해의

사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마리아 사역을 통해 태내에 있는 성령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혼을 위해 “주님의 길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이 화해의 사역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영혼을 용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럼 영혼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혼에게 진심 어린 회개에 구원을 청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롯한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하고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무고한 하느님의 아들은 왜 세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세례에 필요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절대적 요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선교를 위해 순교한 요한보다 더 많은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세례 약속을 매일 이행하기 위해 양심을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는 형제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매일 양심 성찰을 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일상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침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심 성찰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를 “기대치”를 올린다라고 부릅니다.

1. 먼저 **B**는 축복(Blessing)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성령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모든 축복과 모든 십자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둘째, 그 다음 **A**(Ask)는 묻는 것의 약자입니다.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잘못을 확인하고 예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3. 마지막으로 **R**은 결의(Resolve)를 의미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좋은 참회의 행위를 외치며, 매달 고해성사를 하러 갑니다.

매일 5분 동안 이 성찰을 제대로 하고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화되며 하느님의 자비에 완전히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봉헌의 원칙: 밤에 자기 전에 매일 성실하게 양심 성찰을 받으십시오.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들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베드로 (1세기)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사도행전 2:38)
2. 성 보나벤처 (1221-1274)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찾는다”(3)
3. 복자 알랑 드 라 로슈 (1428-1475)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목주를 독실하게 암송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특별한 보호와 매우 큰 은사를 약속한다.” (마리아가 복자 알랑에게 준 15가지 목주의 약속 중 첫 번째 부록 참조)

덕목의 중요한 부분: 요한은 사막 생활에서 매우 검소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느님은 언제나 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주의 계명: 네 번째 계명: “너희는 너희 하느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신명기 5:16) 이것은 축복의 약속과 결부된 몇 안 되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 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심지어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는 유년기에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노후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아들이, 네 아버지의 노후를 부양하고 아버지의 삶에서 그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지력이 쇠약해지면 인내하라...."(13)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여러분은 매일의 양심 성찰과 잦은 성찬을 통한 축성에 충실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는데, 성경에서 "나는 그를 몰랐다"고 두 번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놀랄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물에서 변용된 모습으로 올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견진성사에서 반복할 세례 다짐 (서론) 을 복습해 봅시다.

### 다섯 가지 빛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24)

노트:

## 7주 차

### 가나의 결혼식

성령의 열매: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께 (10)

**성경:**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갔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크기였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군요' 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1-11)

**성찰:** 사랑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하느님은 당신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특히 결혼을 확인하실 때 관대함이 결코 앞서지 않으십니다. 서문에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 대계명을 배우는 열쇠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마리아처럼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타이밍 좋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에 대해 연구하면 그들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이신 주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행동해 주실 것을 믿고 있으며,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에 따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자신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19)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적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기다림은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기적을 보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 마리아 파우스티나에게 여러 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결혼 피로연은 1주일간 지속될 수 있음) 아버지와 예수님이 행동을 취하셨고, 이야기의 나머지는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대량의 새 포도주로 말이죠! 신혼부부는 마리아를 가정과 마음으로 맞이하여 성 요셉과 마찬가지로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한 몸이 된 하나의 마음의 힘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두 분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두 분의 마음에는 많은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23)

이 최초의 기적에 섬기는 사람이나 종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태 고지를 할 때 마리아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섬기는 사람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하녀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시중하기), 주님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만 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를 알기 전에 그 필요성을 보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 기쁜 결혼행사를 두 분과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의 축연이라는 이중 축하행사로 바꾸고 싶어하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에게 주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와 아버지 하느님은 여기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아들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축전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행사에서 아버지 하느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선교와 자신의 교회를 위한 아들을 희생에 대해 예를 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임을 알면서 예수님을 소명으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봉헌의 원칙: 우리가 마리아에게 필요를 전하면 마리아는 반드시 그것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원칙을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로 이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정신적 힘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하나된 마음에서 직접 흘러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된 마음의 완전성과 힘은 여러 원천에서 나옵니다. 첫째, 엄마가 9개월간 품고 30년간 키운 아이 사이에서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완전성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이는 죄 없는 성모 마리아의 때 묻지 않은 마음과 하느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성심 사이의 사랑의 완전성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20)라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와 합심하면 예수님이 합심하여 셋이 됩니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 안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베르나딘 (1380-1444)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이를 실행했다.” (3)
2. 성 루이마리 그리그농 드 몽포르(1673-1716)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모든 행실을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모든 행실을 이루는 것이다.” (3)
3. 성 켈커타의 테레사 (1910-1997) “우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목주의 기도를 드리며 마리아의 겸손함, 친절함,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파함으로써 마리아를 공경한다.”(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마리아, 종, 그리고 예수님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이 즉시 주신다면, 우리는 오만해지고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하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믿게 만드십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예고 없는 일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금주의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13) 하느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니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은 자살, 낙태, 안락사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무고한 인간을 직접 죽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 #2258) 우리 주님은 또한 살인과 관련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장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장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21-24)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깜짝 선물이나 깜짝 사교회를 받았을 때의 놀라움을 나누세요. 가나의 결혼식에서 하느님은 결혼의 소명과 단 한 번의 봉헌된 종교 생활의 소명을 어떻게 모두 인정했을까요?

**과제:** 이 장을 함께 읽고 앞으로 7일 동안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매일 적어도 10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 다섯 가지 빛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24)

## 8주차

### 왕국의 선언

성령의 열매 :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10)

**성경:**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왔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17)

**최후의 심판.**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 사람들을 갈라 놓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갠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갠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마태복음 25:31-46)

**성찰:** 천국을 찾아서 하느님의 왕국(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왕과 여왕은 우리 안에 있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이란 무엇일까요? 왕국이란 영혼들이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한마음의 왕과 여왕이 있어 자비와 정의로 통치합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낙원입니다. 이 지상의 하느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늘나라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기회의 전조입니다. (역대상 17:10, 요한복음 14:2)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 안에 '하느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보려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즉, 모든 순간에 찾아 헤매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보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천국의 '우연'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찾도록 장려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은 짧은 말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마가복음 1:15) 먼저 이 하느님의 나라가 실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우리를 봉헌할 때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과 합쳐집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이 합쳐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회개하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여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왕국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자들인 성전의 예언자 안나와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건넨 사마리아인 여인을 떠올려보세요. 성경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에 대해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후 한 일이며,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사람이 빵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뒤 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고 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느님을 경험하고 다음에 기쁨으로 하느님을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양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위의 왕국의 선언의 성경 (마태복음 25:31-4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끝없는 자비의 행위를 보여주는 어머니와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누가 매일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건넬까요? 이방인, 특히 갑자기 낯선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은 신생아를 누가 환영할까요? 누가 별거벗은 이에게 옷을 입히고,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수감된 이들을 방문할까요?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아들, 손자, 남편, 아버지를 만나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할머니, 아내, 어린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어머니가 이런 자비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천국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또한 특히 병원, 양로원, 학교, 교회, 다세대 가정에 있는 모든 간병인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날마다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가 날마다 행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이용하여 모든 영혼들이 계명을 지키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모든 것을 요약한 두 가지 대계명이 어머니의 마음, 특히 성모의 때 묻지 않은 온전한 마음에 쓰여지는 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모든 힘을 다해 모성과 아이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2:4)

봉헌의 원칙: 마리아의 마음은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입구 즉, 현관을 지나갑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마리아의 마음, 자비의 피난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의 '피난처'란 과실 치사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쳐 그 죄에 대한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죄에 잡힌 사람들이 죄가 늘 가져오는 숙박에서 해방되는 법을 배우는데 평안과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단식, 기도, 특히 묵주와 잦은 성찬의 고해성사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이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하면 안전한 공간, 즉 집과 자비의 마음으로 맞아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고 모든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환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마음에 넘쳐흐르게 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태복음 18:20) 마리아는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죄인들의 피난처인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로레토의 호칭기도, 1587년)

성도들의 증인:

1. 성 아우구스티노 (354-430) “마리아를 통해 가련한 자는 자비를 찾고, 은혜 없는 자는 은혜를 찾고, 죄인은 용서를 받습니다. 약자는 힘을 얻고, 땅 위의 자는 천상의 것을 얻고,



죽어야 할 자는 목숨을 얻고, 순례자는 조국을 찾습니다!” (3)

2.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1195-1231) “이제 주님은 고의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도 자비의 피난처 마리아를 마련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에게 안식처와 힘을 줍니다.” (3)
3.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1347-1380) “자비의 어머니이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의지하십시오. 마리아는 당신을 그녀의 아들 앞으로 데려가서 당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로서의 수행을 하고, 그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3)

1. 덕목의 중요한 부분: 순결함, 온순함, 겸허함, 인내심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에게 목회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섬길 때 요구되는 미덕입니다.

금주의 계명: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34) 교리문답에 따르면 이 새 계명은 다른 계명 모두를 요약하여 하느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 #2822) 다시 말해서, 이는 또한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온 가족에게 진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계명은 모든 어머니, 특히 성모 마리아의 마음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죄가 어떻게 영혼을 속박하는지를 공유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121쪽의 '참행복'을 읽어보십시오.

다섯 가지 빛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24)

## 9주차

### 변형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대한 욕구(10)

성경: 예수님의 변형.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 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 땅에 납작 엎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어루만지며 '무서워 말고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마태복음 17:1-9)

**성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곧 하느님의 신성한 아들이며 가장 위대한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변형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의 열정과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예수님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일어났고, 선포하는 세 명의 사도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보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 그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징후와 경이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그의 마지막 희생에 가까워지자 그에 대한 믿음을 다지기 위해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느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신성한 아들이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포하는 세 명의 사도들이 겪은 이 '산꼭대기'의 영적 경험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집의 평화와 안전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 명의 사도는 성 목요일에 성찬식 빵과 포도주를, 부활절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순절 일요일에는 성령 등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후의 일들은 산 정상이나 교회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윗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누엘”.

주님의 공포. 이는 성령의 견진성사 은덕 7가지 중의 하나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공포는 7가지의 은덕 목록에서 두 번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주님의 기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1-3) 이는 또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어떻게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동기를 얻을까요? 이 여행은 반드시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일치된 마음과의 기도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숙은 평생에 걸쳐 성장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성함에 있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끔찍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성숙의 여정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부모님 등)의 동기부여에서 시작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으로 성숙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세 사도가 곧 예수님을 빼앗기듯 성당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산 꼭대기의 '통과의례'를 통해 이 세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구름의 형태로 아버지 하느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죽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변환된 형태로 말이죠. 그들은 또한 아버지 하느님을 놀랄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신비로운 구름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거룩한 공포에 동기부여를 받고 거룩한 사랑에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포라는 이 중요한(그러나 많은 오해를 받은) 은덕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신성한 성경에서 마리아가 찬가에서 한 것에서도 300번 이상 칭송합니다. (누가복음 1:39-56)

정류장의 정지 표지판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정지 표지판을 두려워하는지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단, 단순히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경우,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고 듣는 결과와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지 표지판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정지 표지판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매일 수십억의 사고를 절약합니다! 모든 정지 표지판을 통해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지 표지판을 따르는 사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성숙과 그리스도교의 성숙함 차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정도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1서 4:18)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통과 의례이며, 삶의 자유와 목적을 주는.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그가 항상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하느님께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대천사가 가브리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봉헌의 원칙:**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라'와 가나에서의 마리아의 가르침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모님 모두가 훌륭한 성경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15-16) 이 "조언자"는 우리의 견진성사 날에 새롭게 부여짐을 얻는 성령입니다.

성도들의 증인:

1. 복되신 성모 마리아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느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누가복음 1:46-50)
2.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1894-1941) “우리들의

은사는 원죄없는 잉태에 있어서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 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무한하며, 아버지 하느님의 위엄에 걸맞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께 유일한 중개자요, 원죄없는 잉태요, 예수님께 유일한 중재자 입니다.” (20, 16쪽)

3. 성 루이마리 그리그농 드 몽포르 (1673-1716) “거룩한 묵주는 주님의 기도와 천사의 경례, 즉 우리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로부터 주로, 또 본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신자들의 첫 번째 기도이자 첫 번째 믿음이었으며 사도와 제자들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25)

덕목의 중요한 부분: 이 변형은 베드로, 야곱, 요한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덕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의 경험 이후,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주의 계명: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출애굽기 20:14) 이 명령이 간통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마음,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성적 불순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마태복음 5:27-30).이 계명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성적 불순에 적용됩니다. 세상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이는 정조의 미덕이 부족합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묵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 다섯 가지 빛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24)

노트:

## 10주차

### 만찬

성령의 열매: 경배 (10)

성경: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누가복음 22:14-20)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주님, 그런 양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느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32-58)

**성찰:** 신성한 사랑을 맛보고 싶다면 성체를 받으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미사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열렸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유대인들에게 매년 의무적인 축제였습니다. 1300여 년 전에 하느님은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매년 이 축제를 가정 내에서 축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 때마다 부모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가족 식탁에 올리고, 하느님께서 노예에서 어떻게 그들을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구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의 사랑하는 헌신이란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36:12)

이 식사로 우리의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축하하실 것이며, 이 역사적인 감사의 축제의 모든 의미를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과 영혼을 이 전례의 식사에 쏟고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그 자신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위와 같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요한복음 6:53)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 제도로부터 구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신 전령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체를 받을 때 우리는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내밀어 남편과 가족에게 아이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여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삶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신성한 빵과 포도주로 자신을 바치기 전에 베드로 때처럼 그들의 발을 씻고 고해성사를 듣는 방식으로 성체를 씻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잠시나마 음식과 음료를 포기하고 몸, 옷과 영혼을 맑게 하고 성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죄를 짓고 있다면 성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회개할 의지를 보임으로써 항상 하느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체를 '받는다'는 것은 성체를 '가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제를 기다렸다가 겸허하게 성체를 받으십시오.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기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십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과 피로 만든 젖을 아기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아기는 완전히 어머니의 몸과 피로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추종자들에게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위에 흐르는 물과 하늘에서 온 만나 빵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은 추종자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보호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빵과 와인으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잠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누가복음 22:19-20)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믿으며, 주어진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체를 보고 놀랄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날 것입니다.

봉헌의 원칙: 마리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봅시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는 성 요한 바오르 2세가 ‘몸의 신학’에 관한 가르침 속에서 서술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욕정이다, 즉 타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46) 진실한 사랑의 은사에 응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하느님이 주신 자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랑받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치는 영적인 직관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고자 할 때 마리아가 우리를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 고명한 아들에게 더 다가가는 수단으로 마리아와의 우정을 청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은 정신으로 마리아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제2의 대계명을 배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과 온순함으로 희생적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사랑하는 방법을 마리아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미사 때마다 자신의 육체와 피를 바쳐 우리를 희생적으로, 겸허하게, 유희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고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비밀의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카에탄 (1480-1547) “성모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당신에게 와 달라고 끊임없이 청하십시오.

대답해지십시오. 성체에서 바로 당신의 영혼의 양식인 아들을 당신에게 달라고 그녀에게 청하십시오. 그녀는 기꺼이 그 아들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3)

2. 테레사 수녀 (1910-1997) “마리아의 역할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기병대를 타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1)

3.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목주의 기도로 마리아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환희의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인정한다.”(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사도들의 발을 씻기면서 큰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함에 있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금주의 계명: 일곱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출애굽기 20:15) 이웃의 소유물, 즉 자기 소유물이 아닌 것을 빼앗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보유하거나 그 재산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존중도 필요합니다. (6, #2410)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소문 또는 중상모략으로 타인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절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둑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사 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사람은 쉽게 이 죄에 대한 필요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상의 의무와 정당한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 자체에 대한 회개의 의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3, 6 #2412)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매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 주신 방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뿌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미사의 전례에 우리의 전신 전령을 쏟고 있습니까?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빛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24)

노트:

세번째 서약

저, \_\_\_\_\_는 성모 마리아에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5주간 후견인, 가족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목주의 각 수업을 충실히 배우고, 매일 일련의 목주를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이 나를 사랑했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 11주 차

## 동산에서의 고뇌

성령의 열매: 죄에 대한 슬픔

(10)

성경: 동산에서의 고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겓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피로와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피로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두 번째 가서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마태복음. 26:36-46)

성찰: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며 기도하십시오.  
다음 5단 목주 명상 중 '슬픔의 신비' 즉, 고통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의 삶에도 기쁨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은 삶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아버지에게 선택된 예수님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문지 않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의 아름답고 창조적인 행위로 바꿔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행차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멈춰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하느님께 드리는 강력한 은사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고, 하느님께서 "동산을 지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사탄과 죄로부터 이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6) 예수님은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되지만, 그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는 데 성공하실 것입니다. 왜 사탄은 처음에 이브를 노렸을까요? 아마도 사탄은 하느님이 이브를 창조한 것은 하느님께서 온 가족이 마음과 영생에 대한 열쇠인 두 가지 대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이브를 만드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사형이 예정된 죄수를 상상해 보세요. 사형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사도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고 경계한다면, 인생의 시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과의 싸움에 지지 않도록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움직임을 매일 지켜보고 기다리는 남녀여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훌륭한 목표는 깨어 있는 시간의 10%를 하루를 통해 어떤 형태의 기도에 바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약



6분입니다.

아침 공양과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봉헌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매일 가장 거룩한 묵주의 일부를 기도해 주세요.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혹은 통근이나 통학 시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미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의 미사는 훌륭한 수행이며, 주중에 성당에서 몇 분 동안 성체 주님을 방문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성체 앞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훌륭한 신앙심입니다. 정오는 '삼중' 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시간이며, 오후 3시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은 '매일의 양심 성찰'과 '수호천사를 위한 기도'에 최적입니다. (부록) 매월 화해 또는 고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은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덕목을 높이며 수없이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이 기도 훈육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일, 기쁨, 고통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바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고통을 하느님께 드리는 달콤한 희생으로 바꾸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평생 동안 더 나은 기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간단히 시작해서 시간을 들여 마리아가 이것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봉헌의 원칙:** 마리아의 사랑의 '도구'가 되십시오. 많은 성인들, 특히 성 막시밀리안 콜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마리아의 손안에서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0) 이는 지난 신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리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리아에게 바치는 자유 의지의 선물이며, 마리아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도의 의도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가난한 영혼, 즉 방황하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을 돕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이며, 많은 성도들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의도를 높이지만, 예를 들어 아침 봉헌 기도로, 우리는 매일 마리아에게 이 허락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알버트 대제 (1193-1280)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모 마리아는 과거, 그리고 미래의 누구보다도 기도에 있어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지속적이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3)
2. 성 루이마리 그리그농 드 몽포르 (1673-1716) “마리아는 지상 생활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믿는 자 모두 계속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3)
3. 성 요셉 마리아 에스κρι바(1902-1975)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싶다면 성모 마리아를 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묵주의 기도를 하십시오.” (27)

덕목의 중요한 부분: 하느님의 아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큰 겸손함과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의 제자는 예수의 덕목을 모방해야 하지만 이는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급주의 계명: 여덟번째 계명: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16) “여덟번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6, #2464)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비롭다면 말이나 행실에 있어 불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 야고보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게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느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야고보서 3:7-10) 이 계명에 어긋나는 죄의 대부분은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들과 싸울 때 우리의 자녀와 손자도 이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깨어 있는 시간의 10%를 주로 기도예 바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NOTE:

## 12주차

###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성령의 열매 : 순수함 (10)

성경: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찌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었다. (마가복음 15:12-15)

성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거기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은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여 제사장들에게 바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어린 양의 가족을 벗겨내고 그 가족을 대제사장에게 성직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28) 피부를 찢고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로마인들이 고안한 날카로운 뺨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은 40회를 맞아 '살점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며, 채찍질 횟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었습니다. 채찍질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벌거벗고 모든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채찍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가족이 벗겨졌을 때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를 견뎌냈습니다. 죄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경멸을 받고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태복음 10: 32,33)

지난 10년간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각각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반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적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그를 구해줄 것을 참을성 있게 믿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완전한 은사로 이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29)

마리아는 예수님의 채찍질을 보면서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인자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했지만 이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로 합심함으로써 이 신비를 기도하거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봉헌의 원칙:** 지금 이 순간에 사십시오. 목주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마리아님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미래나 과거를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음식, 술, 약물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현재의 순간을 건디도록 특별히 마련된 하느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폴턴 신 주교는 한때 비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십자가를 피한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는 동안 인간의 본성에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채찍 한 번 한 번을 은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시며, 그 순간의 은사와 순간순간을 건디기 위해 하늘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헤매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의 은덕을 놓치고 계신가요? 각각의 현재 순간은 완전히 독특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 사는 현재 순간들은 우리의 영원성을 채워줄 것입니다. 각 순간에 감사하는 은혜를 하나되신 성심에게 구하세요. 겸손한 감사는 항상 각각의 현재 순간에 대한 적절한 응답입니다.

지금 순간의 예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집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요란하지만 무방비 상태인 이 아기의 요구에 **100%** 집중해야 한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상에 잠겨 미래나 과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에 휘말릴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아기 예수에게 **100%**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요구에 바쳐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순간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모든 식별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고 천국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번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신비든 고통의 신비든 매 **10년**이 끝날 때마다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봉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견디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품는 십자가의 각각에 의미를 찾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1347-1380) “자비의 어머니인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의지하여라. 마리아는 당신을 아들 앞으로 데리고 나가, 당신을 위해 어머니로서 그를 중재할 것이고, 그로써 그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3)

2. 성 막시밀리안 콜베 (1894-1941)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죄 없는 잉태 성모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원죄 없는 잉태 성모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없는 잉태 성모에게 다가가 그 미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원죄 없는 잉태의 성모를 마땅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
3.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지낸다. 성스러운 묵주는 오랜 전통에 의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기도로서 특히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예수님께 눈을 돌림으로써 서로 눈을 맞추고 소통하며 연대를 보여주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의 언약이 하느님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견디시면서, 유화함, 인내,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셨습니다.

금주의 계명: 아홉 번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일체 탐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출애굽기 20:17, 마태복음 5:28, 6, #2514) 욕망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불순한 죄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대 미디어는 이 계명에 반하는 죄에 관련하여 우리의 마음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불순한 온라인 화상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으로 인한 영적인 이익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위배되는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차를 몰고 갈 때는 눈앞의 도로에 집중해야 하며, 방금 통과한 도로나 앞으로 나아갈 도로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도를 하거나 미사에 참석할 때 순간부터 주의가 산만해짐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의 가장 힘찬 기도, 즉 십자가형 때 마음을 흐트러지셨을까요? 전혀요! 이러한 주의 산만함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하늘이 주신 은혜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 (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노트:

## 13주 차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 : 용기 (10)

성경: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싹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였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19:1-6)

성찰: 죄인을 위해 예수와 마리아에게 은사로 모든 고통\*을 바치고, 현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합시다.\*(의도적 학대는 모두 부모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을 채찍질하는 행위는 로마의 형벌의 일종으로 엄격한 규칙에 따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대와 채찍으로 정해진 횟수의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병사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행위는 유례없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병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웃었던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유대인에게 아무런 사랑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시관을 쓴 것은 십자가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참기 힘든'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발설된 잔혹함과 증오를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고통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불건전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맛보심에 감사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당신 마음의 왕으로 대관하고, 주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모시고, 당신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아기 예수님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던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하느님의 은혜 속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봉헌의 원칙: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문하고 모든 고통을 맡기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은사로 바치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주실 것입니다. 아프거나 고통이 있을 때 약을

먹어도 이를 모두 은사로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성모 마리아 봉헌의 기도 속에서 이를 주창합니다. 병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비웃었을 때 그리스도가 한 일은 이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원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포함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불평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바친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1서 3:16)

마리아는 이 성경을 따르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인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를 살아가며 실천했습니다. (로마서 12:1)

### 성도들의 증인

1 교황 베네딕토 15세 (1854-1922) “마리아는 하느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 구원에 협력했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

2 성 막시밀리안 콜베 (1894-1941) “십자가는 사랑의 학교다. 사랑은 희생으로 먹고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늘과 땅의 가장 은혜로운 여왕인 원죄 없는 잉태의 성모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이루거나 고통받도록 영혼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20, 108쪽, 69쪽)

3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목주 기도는 우리의 짐을 그리스도와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에 맡기는 것이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적이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할 때도 예수는 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주의 계명: 열번째 계명: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출애굽기 20:17, 마태복음 6:21) 제10계명은 욕욕에 관한 제9계명을 전개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도, 강도, 사기의 근원으로서 타인의 재산을 탐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제5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력과 불의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간음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첫 세 가지 계명에서 금지된 우상숭배에서 비롯됩니다. 제10계명은 마음의 뜻에 관한 것으로, 제9계명과 함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6,#2534, 요한1서 2:16, 미가 2:2, 지혜서 14:12) 초기의 교리서들은 제9계명과 제10계명을 분리하며, “이 2개의 계명으로 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계명을 지키려면 특별히 탐욕스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고,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예수님이나 마리아에게 은사로 상처, 불편함 또는 모욕을 바침으로써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를 느꼈습니까? 이 희생적인 은사의 바침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높일까요? 매일의 양심 성찰을 하면서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감사합시다.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노트:

**14주 차**

# 십자가를 지고 계신

성령의 열매: 인내 (10)

**성경:**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히브리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요한복음 19:17)

그리고 그는 그들이 요구한 사람, 곧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누가복음 23:25-31)

**성찰:**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6:24 & 누가복음 9:23)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슬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 신자 중에는 예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들어 도왔고, 다른 이들은 자비와 동정의 눈물로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성 베로니카, 성 요한, 성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옹호한 강도, 백인대장 론지노 등 성자로 현재 신앙에 의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그의 조언은 수세기에 걸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하느님께 십자가를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마지못해 도운 키레네 사람 시몬의 노력은 1세기에 기독교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박힌 진실에 대해 직접 증언했던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푸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쓰러지십니다. 이 넘어짐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고, 몇 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향한 삶을 통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느님과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어떤 이들로부터 축복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모욕을 받는지는 모두 우리 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고, 길의 모든 방향에서 도움과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예수 탄생 때 생명을 주셨고, 서른 살에 세상에 인도하신 어머니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봉헌의 배후에 있는 신성한 힘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그분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항상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은 힘과 은혜를 가져다 두 사람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 그녀는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녀는 못 하나하나를 느낍니다. 예수가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녀는 베일로 예수님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 그녀에게 전달되자 그녀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읊니다. 하느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그녀에게 준 아이는 그녀의 마음에서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괴로워하며 그녀의 자녀가 잔혹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승리, 위대한 자유와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마리아가 당신 곁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매일 당신의 마음과 집으로 맞이하여 그녀가 어떻게 노력하고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그녀에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우리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클레르보의 버나드(1090-1153) 앞에 나타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께 큰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어깨의 상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30) 주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서 이 상처를 고귀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을 것이라고 버나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팁:**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묵주의 고통 신비를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묵주의 기도 중 4가지를 말하면서 그 처소의 신비를 되새겨 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처소에서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 마리아'를 3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모 마리아'를 4번, 세 번째로는 '성모 마리아'를 3번 그리고 '영광의 찬가'를 1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처소 이후에, 15번째 처소인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고찰을 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더 자주 하는 습관이 됩니다.

**봉헌의 원칙:**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갈보리를 오르는 주님을 따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괴로워하고, 주님은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괴로워합니다— 바로 하나되신 성심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곁으로 성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의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당신도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 켈커타의 테레사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 속 사랑과 당신을 직접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1)

성도들의 증인:

1. 성 요한 보스코 (1815-1888)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작든 크든, 친구에게서든 적에게서든,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영혼은 평생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31)
2. 성 막시밀리안 콜베 (1894-1941) “성모님은 우리가 성모님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위해 고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작은 십자가를 조용히 짊어지고 그들이 존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3)
3. 교황 비오 11세 (1857-1939)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정, 그리고 나라에 평화를 원한다면 매일 밤 모여 묵주를 암송하세요. 아무리 걱정과 수고가 많더라도 하루라도 묵주를 외치지 않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앞일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급주의 계명: (이것은 정식 계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 & 누가복음 9:23) 우리는 각각의 십자가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정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며 계속 나아갑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 (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노트:

## 15주차

### 십자가 못박히심

성령의 열매: 인내 (10)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못박히심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히브리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 19:17-30)

### 성찰: 용서하십시오!

십자가형에 의한 죽음은 질식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생명을 불어넣었던 하느님의 아들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7가지 말씀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 중에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와 “요한이여, 보라, 네 어머니시다. 여자여, 보라. 네 아들이니.”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지만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25)

막내 사도인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아들여 평생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인 후 요한은 성 요셉의 비밀스러운 마리아의 축복을 알게 되었고 곧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번 하느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 그는 단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50일 후, 그는 오순절 일요일에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한참 뒤에야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통찰력이 풍부했기에 기독교 성전 요한 계시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에 맞이하는 일을 매일 습관화하면 요셉의 비밀스러운 마리아 축복도 개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정과 마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시는지에 우리는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자가 위 예수님의 자세를 연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못박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못박혀 있습니다. 적을 멸망시키기 위해 저주를 내리거나 천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목은 바싹 마르고 숨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는 이 고통의 순간에 시편 22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적을 용서하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 희망, 믿음, 겸손, 인내, 끈기로 가득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몸을 맡기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싶은 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멸시한 것을 멸시하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던 것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미덕의 예증이기 때문입니다.”(29)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적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우리를 증오와 죄에서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그를 증오와 폭력의 비극 속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최대의 비극일까요? 둘 다 해당합니다. 이 비극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를 맞은 몸은 가죽을 벗긴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매년 유월제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모양 불 위에서 어린 양을 구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은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는 아말렉 군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로 손을 올린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팔을 받들어 도왔습니다.(출애굽기 17:8-16) 마리아, 요한, 그리고 여인들도 십자가 아래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독실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을 떠올리며 세례자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이라는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봉헌의 원칙: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는 제2의 빛의 신비인 가나의 혼례에 대해 논의했을 때 이 강력한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례에서는 마리아, 하인들, 그리고 예수가 모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다림 끝에, 물이 와인으로 바뀌는 멋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할 신랑 신부는 그날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기도하며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을 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되고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하느님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모든 기도는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수반합니다. 언제나 말이죠! 때로는 몇 분,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고 계신 모든 일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 희망, 인내, 끈기, 신뢰, 유화, 겸손, 사랑, 순종 그리고 특히 용서입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각각 서로 쌓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면 완벽해집니다. 미덕에는 항상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증인:

1. 교황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갈보리 언덕에서 성모 마리아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십자가 받치에 성모 마리아가 계신다는 것은 그녀의 아들의 구원적 죽음에 가장 특별한 참여를 의미한다.” (3)
2. 세인트 버나드 (1090-1153)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은 강철의 창으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숨을 거둔 당신 아들의 마음보다 더 깊습니다” (3)
3. 성 바울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로마서 12:1)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십자가형을 인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21페이지의 ‘참행복’을 참조해 주십시오.

글주의 계명: (이것은 정식 계명이 아닌 주님의 지시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복음 6:14-15)

아들의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예수님의 적과 로마병을 용서한 마리아를 돌아보세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는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 일곱 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누가복음 17:3-4)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집에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특히 고통의 신비를 외치며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목주의 신비:영광’의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숨겨진 더욱 기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 (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노트:

네 번째

서약

저, \_\_\_\_\_ 는 성모 마리아에게  
맹세합니다. 앞으로 5주간  
후견인, 가족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목주의  
각 수업을 충실히 배우고,  
매일 일련의 목주를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이 나를  
사랑했듯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 16주차

### 부활

성령의 열매: 믿음 (10)

성경: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너희는 속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뵈도록 하세요.' 하고 일러 주어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셨다."(마태복음 28 1-10)

성찰: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느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사흘 뒤 그가 부활하자 제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40:31)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죽음에서 되살아난다고 약속하셨지만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어머니를 제외하고 그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이시며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들에게 극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예수님을 찾고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세요. 마음과 집으로 오세요.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에 의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미 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40)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 동굴에서 묻히고 동굴 속 죽음에서 되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7) 이 상징은 흙 속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햇빛을 보고 성장하고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하느님이 우리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자매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십자가 발치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한탄하며 슬퍼했습니다.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자매인 마리아는 그의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이미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부활한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정원사라고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20:11-18) 성 요셉처럼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서서 기다리고 기도 속에 반영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불현듯 주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와 형태로 말이죠! 하느님은 놀라움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한 아들을 처음 만난 것은 성모 마리아였을 것이지만, 하느님은 지금 그 멋진 재회를 우리에게서 숨기셨습니다. 대신 복음서 저자는 슬픔에 잠긴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자매인 마리아의 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 나섰으며 그 대가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구하고 계속 기다리면 우리 모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 주실 거라 믿으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중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낙담했던 두 제자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4:13-35)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장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을 설명하고 메시아가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야 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함께 빵을 떼어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급히 돌아왔습니다. 다음에서는 마리아를 아는 제자들과 다락방의 공동체가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여행자로서 하느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 전도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전하려 한 것은 틀림없이 슬픔에 잠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돌아가신 부모인 성 안나와 성 요하킴도 부활절 아침 손자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날 아침 이전에 돌아가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마 마리아의 부모님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51-53) 성 바울은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뒤 500명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8)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체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봉헌의 원칙:**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리아 봉헌의 가장 뜻 깊은 원칙 중 하나는 마음이 하느님의 출입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선행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 주변 세계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하러 지상에 오셨을 때 원죄 없는 여성의 모성애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장 애정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는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과 자궁을 통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성 요셉을 비롯해 마리아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마음을 바칠 때, 우리는 그녀의 미덕을 세상에 전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합니다. 성 캄캄타의 테레사는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을 내게 빌려주소서”와 “마리아여, 당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에 나를 담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출입구에서 악이 우리의 세계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나 용서하지 않은 것, 복수심을 마음 속에 품고 있다면 이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우리 주변 세상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테러와 같은 악이 시작되고 퍼지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8**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요셉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도들의 증인:

1. 성 그레고리 나지안젠 **(329-390)** “우리가 마리아의 자비를 우리를 향해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미덕입니다. 그 미덕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3)**

2. 성 요한 에우데스 (1601-1680) “마리아의 마음속에 살고, 마리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마리아가 원하는 것을 바라라. 그러면 반드시 평화와 기쁨과 거룩함을 가질 것입니다.” (3)
3. 성 요한 비안네 (1786-1859) “겸손은 여러 미덕에서 묵주의 끈과도 같습니다: 끈을 풀면 구슬은 흩어져 버립니다. 겸손을 없애면 모든 미덕이 사라집니다.”(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여성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주님의 시신을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근면, 순종, 끈기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지만, 성금요일 밤에는 이를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매장하는 자비의 육체적 행위도 행하고 있습니다. (부록)

금주의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3-35) 우리의 교리문답은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하느님의 뜻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 #2822)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새 계명은 또한 모든 어머니의 가까운 가족에 대해 품는 소망을 표현하지만, 특히 하느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에 대한 성모의 때 묻지 않은 어머니 마음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어머니는 온 가족을 위해 희생적인 자비 행위를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2주차에 앞서 말했듯이, 주님이 성 과우스티나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자비의 행위를 네게 요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를 주저하거나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42) 마리아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성 엘리사벳의 집으로 "서둘러" 가서 3개월간 자비의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비심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는 전통적인 찬송가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느님은 반드시 계시니라” (32) (저자인 3학년 음악교사가 이 가사를 라틴어 원문에서 번역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41)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원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33)

노트:

## 17주차

### 천국으로의 승천

성령의 열매: 희망 (10)

성경: 예수 승천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지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사도행전 1:6-12)

### 예수님 승천.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마가복음 16:19-20)

### 제자들의 임명.

열 한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 주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뵈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28:16-20)

성찰: 가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께 받들어 아버지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기로 보내셔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의 품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주 잠깐뿐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매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성당에서는 천국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습관으로 하루를 다듬도록 가르칩니다. 아침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하루 전체를 드리는 아침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아침 기도 또는 이 책에 있는 매일 마리아 봉헌 기도는 훌륭한 예입니다. 저녁에는 매일의 양심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마리아와 성령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그리스도교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빌며 그날의 모든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사이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목주입니다. 매일 10회로 시작하여 마리아님이 이를 늘려 주십니다. 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운동, 운전, 기타 일상의 많은 일과 결합하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주는 마리아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평생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부록에 있는 목주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12가지 약속을 참조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희생을 수반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곁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과 존재는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마가복음 16:19-20)와 같이 성령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공동체를 베드로, 야곱, 요한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손에도 맡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을 치르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장되어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신비로 이에 대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봉헌의 원칙:**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완벽한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손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헌 원칙에서**, 우리는 항상 가족 생활과 교훈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느님은 천국을 본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고자 가족을 창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주고 아내는 가족을 위해 모든 자산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모든 은사를 엄마에게 가져다가 보관하게 합니다. 가족은 어머니를 신뢰하고 있으며 가족은 어머니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각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를 위해 같은 일을 합니다. 그녀에게 헌신하고 있는 우리는 매일 모든 생각, 말, 행동을 그녀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하나 받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며, 그 두 개의 은사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교환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은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와 성체에서 마리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예수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의 삶에 중심이듯이 어머니도 우리 생애 여정의 모든 측면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느냐고 많은 이들이 묻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영적인 어머니이자 '영원한 조력자'로 사랑할 때 하느님은 그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마태복음 25:35-40)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어머니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부당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 하느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를 두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의 친밀하고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느님 또한 하늘 어머니의 친밀하고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누구도 영생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르 2세는 라틴어로 '나의 전부이신 마리아'를 뜻하는 '**Totus Tuus, Maria,**'라는 교황의 표어를 채택했습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메소디우스 (815-885)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께 모든 은혜와 영예를 드렸다” (3)
2. 성 마리 드 몽포르(1673-1716)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보면서 사랑과 관대함에 있어서 결코 뒤쳐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같은 영혼으로 우리와 만납니다. 마리아는 또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15)
3. 성 요한 비안네 (1786-1859) “목주의 신비를 믿음으로 명상하면 최악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존재에 올라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일체가 된다는 미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곧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금주의 계명:** (이것은 정식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마태복음 7:7-12)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신 지금,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으시면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체와 모든 성례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성막(聖幕)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놀라운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항상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존재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님을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한 우리는 새롭고 뜻밖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새롭게,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고대할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애가 3:22-23)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주님을 찾다가 언제 뜻하지 않게 주님을 찾으셨나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워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워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  
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33)

노트:

## 18주차

###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열매: 하느님에 대한 사랑 (10)

성경: 사도행전

성령의 도래.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이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사도행전 1:13-14)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행전 2:1-8)

**성찰:** 견진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뜻밖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5) 부활절 일요일부터 50일 후인 오순절 일요일, 11명의 사도와 많은 제자들이 한 가정의 다락방에서 성모 마리아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그들과 최후의 만찬(첫 미사)을 집전한 것과 같은 방이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여러 번 그들 앞에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이 불꽃과 바람 모양의 혀가 되어 그들 모두 위에 내려와 그들에게 새로운 열의와 많은 영적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순간 성 요셉의 비밀스러운 마리아의 축복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매우 개인적으로 친밀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그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가정의 큰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한 집에서 모이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졌고, 결국 성당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도로 성당에 모여 매주 미사를 집전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가르쳐주신 성체의 희생을

바쳐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며, 지금 성당은 새롭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40)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의 때 묻지 않은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대계명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처럼 완전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관여 없이 성령의 힘에 의해 마리아 안에 완전히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킨 아들이 자신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자신의 하느님이기에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 온 힘으로 하느님인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웃 예수님과 그녀의 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두 계명 사이에 모순이나 경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37)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녀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또한 성모 마리아라는 독특한 인물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녀는 아버지 하느님의 딸이며, 아들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성령이신 하느님의 배우자입니다. (7) 그녀는 하느님이 아니라 성 삼위일체의 각 구성원과 독특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 둘러싸여 있고 마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자기 자신처럼 온 몸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이며 두 가지 대계명의 반영입니다.

견진성사 때 여러분은 각각 놀랍도록 새로운 뜻밖의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성령의 굉장한 은사 (부록)를 받들어 성령의 영적 열매 (부록)를 체험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세례 때 우리 위에 내려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견진성사에서는 새롭게 성령이 부어져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성당)이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매일 10회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심 어린 은사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매일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힘을 통해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신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는 모두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정신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 특히 희생적인 사랑과 괴로움을 알고 모범이 되는 여성의 진실되고 진심 어린 헌신에 감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여성들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땅 끝까지 여행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성의 열정과 열의에 감명을 받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윽고 우리가 집을 나설 때면 매주 모여 기도와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순절의 이 중요한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모임에서 마리아와 성령을 초대하여 놀랄 준비를 하세요!

봉헌의 원칙: 우리가 마음에 품는 무엇이든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오순절의 신비는 수태고지의 신비와 매우 비슷합니다. 수태고지 때 마리아는 하느님을 그녀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했고, 하느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자궁 안에서 9개월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이를 완전히 체험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마음과 가정에 성령을 초대하여 저마다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은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내려오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 각기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일치와 은사의 다양성 모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두 5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릴 가치는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결실입니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성 마리아는 오순절에 십자가 발치에서 그녀의 ‘일부’가 된 ‘새로운 모성’을 ‘다락방’으로 들여왔다. 이 모성은 그녀 안에 머무름과 동시에, 그녀로부터 성당 전체에 대한 ‘모범’으로 옮겨져, 보혜사(성령) 강림의 날에 세상에 밝혀지리라.” (34)
2. 바티칸 문서 인류의 빛 (1964) “우리는 오순절 전 사도들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에서 그녀를 덮고 있던 성령의 은사를 빌며 간청했습니다.” (16)
3. 성 루이 마리 드 몽포르 (1673-1716) “성령께서 영혼 속 마리아를 찾으실 때 그 영혼으로 날아갑니다. 성령은 그 안에 들어가 그 영혼에 자신을 풍부하게 전합니다.” (3)

덕목의 중요한 부분: 사도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자신들 위에, 그리고 자신들 안에 성령이 깃들어 있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급주의 계명: (이것은 정식 계명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사람처럼 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이것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믿든 아니든, “나는 놀랄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세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 나누십시오! 아마도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11) 하느님을 만났다는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은 오직 자신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공유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적 이야기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질문: 견진성사로 공동체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후견인과 함께 하느님에게 그 은사들을 지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는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을 키울 것입니다.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묵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워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워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  
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 주십시오. (33)

노트:

## 19주차

### 성모 승천

성령의 열매: 행복한 죽음의 은혜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이 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6,#966; 16,35)

(비잔틴 전례)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은 출산 때에도 동정을 보존하셨으며, 돌아가시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나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을 잉태하셨고 기도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당신은 생명의 근원에 결합되셨나이다.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마리아의 '잠'을 뜻함.

성찰: 하늘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하늘 어머니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어머니는 당신에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에페소스에서 복음 전도자 성 요한과 함께 지상에서의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은 보통 2명씩 그 나라로 향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페소스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목사였겠지만,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의문이 듭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 특히 새로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고, 물론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많은 자선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성 누가는 에페소스에서 마리아와 성 요한 모두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누가복음 1:1-2)

하느님을 분명하게 보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남성도 여성도 모두 어머니의 희생적인 애정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계명을 배우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두 번째 대계명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희생적인 사랑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훌륭한 일을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사랑의 학교에서의 이 기본적인 교육이 우리의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겸손하게 계속 배우도록 돕고자 자신의 어머니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숙은 이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훈련은 젊은이들이 집을 나와 어른으로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 혹은 잠이 든 후 무덤에서 천국으로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초기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은 마리아가 죽자마자 그녀의 시신을 보고자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죄의 오점이 전혀 없었던 마리아가 하늘나라에 올려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마리아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늘에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마리아는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 육체도 필요로 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리아에게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어머니, 선지자, 교사, 지도자, 개인 스승으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마리아는 우리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즉 성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우리의 허가, 즉 '예'뿐입니다. 다른 좋은 어머니들처럼 마리아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에게서도 진심 어린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의 사랑으로 맺어짐으로써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이 우리 삶에 오십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리아에게 '예'라고 말하십시오. 결코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봉헌의 원칙: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두 번째 대계명은 첫 번째 대계명을 배우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훈련입니다.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지는 첫 번째 책임은 희생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주고 그 희생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이웃을 자신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계명을 따르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뽀뽀나 미소, 노래, 여러 애정 표현을 요구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마리아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의 통합된 마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말을 걸고 묵주기도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계명을 잘 배우기 위해 먼저 두 번째 대계명을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랑, 겸손, 순종, 믿음의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증인:

1.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아들을 주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에서 인류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에페소서 2:18) (36)

2. 성 루이 마리 드 몽포르 (1673-1716)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은 거룩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깊은 겸손, 활기찬 믿음, 준비된 순종, 끊임없는 기도, 보편적 고행, 신성한 순결, 열렬한 자애, 영웅적인 인내와 천사 같은 친절함 그리고 천상의 지혜와 같은 마리아의 미덕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3)

3. 성 요한 바오르 2세 (1920-2005) “마리아의 축일을 축하하고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며 매일 기도하고, 특히 묵주를 외치며 마리아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기를.”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마리아는 육체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이자 개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아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일치가 성모 마리아를 향한 봉헌과 힘이며 모든 미덕의 원천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됩시다.

금주의 계명: (이것은 정식 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28:19-20)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지난 18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친구와 공유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박해받았나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워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워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  
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주십시오. (33)

노트:

## 20주차

### 하늘의 모후님 마리아의 대관

성령의 열매: 마리아의 중재기도에 대한 신뢰 (10)

성경: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으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아주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로 달을 밟고 머리에는 열 두 별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인 이 여자는 곧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으며

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놀라운 권세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1:19-12:5)

**성찰:** 그렇다면 왜 전도사 성 요한은 마리아에 관한 이 부분에서 ‘언약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상의 언약궤는 세 가지의 매우 고귀한 물건들을 담은 봉헌된 성막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만나 빵 용기,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판입니다.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새로운 궤로 보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영생의 빵이자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인 구세주이자 새로운 대제사이신 예수를 자기 안에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 대계명이 어머니들의 마음, 가장 완벽하게 성모 마리아의 마음에서 볼 수 있음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는 또한 십계명이 궤에 있었다는 점에서 마리아가 새로운 궤라는 상징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이사야서 7:14)

역사적으로 성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기기 위해 전투에 가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6세기 기독교인들이 1571년 레판토 전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의 적들을 이기기 위해 마리아를 마음과 가정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생 동안 영원한 운명, 즉 하늘과 땅의 여왕, 영원한 새로운 이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운명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고하고 완벽한 기독교인인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에게 의지하면 그녀는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여러분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성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대우받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사랑하면 마리아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녀의 은혜로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의 개인 스승 및 동료가 되어, 여러분이 성자가 되는 것을 돕고, 영원히 마리아를 사랑하는 어머니로 간주할 것입니다.

**봉헌의 원칙:** 기도와 찬양에 충실하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자비의 자매들에게 각자가 성모 마리아를 위해 해야 할 의무의 목록과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의무의 목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무의 하나는 '기도에 충실'입니다. **(8)** 성모 마리아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기도와 찬양의 경험을 우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의 나머지는 이 책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어 견신례로 성령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법, 특히 목주의 기도법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언어로 말하도록 가르치지만, 우리가 목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천국의 언어 말하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목주 기도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성도들의 증인:

1. 교황 요한 23세 (1881-1963) “원죄없는 잉태는 마리아의 희생도 동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희생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과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3)
2.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1207-1231) “성모님은 일찍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력 없이 은총과 미덕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엄청난 노동과 끊임없는 기도, 열렬한 소망, 그리고 많은 눈물과 고행 없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3. 리지외의 성 테레사(1873-1897) “나는 목주의 기도가 서툰다고 느낀다. 목주의 신비에 대해 명상하려고 집중하고 노력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내 믿음의 깊이에 낙담했었다. 성모 마리아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매우 기쁘게 한 그녀를 위해 기도를 외우는 것은 쉬울 텐데, 저를 놀라게 했던 제 헌신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낙담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 슬프지 않다. 내 어머니이기도 한 하늘의 여왕이 나의 선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덕목의 중요한 부분: 하늘과 땅의 여왕인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든 은혜를 영혼에게 바칩니다. 마리아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며, 당신의 '예', 즉 마음속에 시녀로 오라는 당신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금주의 계명: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20:7-8) 여기서는 두 가지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로 가는 여정에서 논의해 온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별하라는 부름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이란 신성하게 하는 것 또는 보다 더 숭고한 목적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한다는 말의 secr 부분은 라틴어의 sacer(신성한)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요한복음 17: 17-21)

성 바오르는 성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봉헌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디모데후서 2:21-22)

마리아의 손을 통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우리는 부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짧은 봉헌 기도를 통해 매일 우리 자신을 다시 봉헌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것은 매일 아침 성모 마리아를



껴안는 것이며,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준(BAR)을 계속 올리고 우리를 그녀의 아들 예수님께 데려가는 허락을 내리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의 손을 통해 하루 종일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에 대한 봉사에 다시 몸을 바치는 방법으로 보통 기념일에 매년 자기 자신을 다시 봉헌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후견인이나 부모와 신앙 나누기: 질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비의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천부적 재능이 있으십니까? 하느님에게 그 재능에 감사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견진성사와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을 어떻게 축하할지 함께 계획해주세요(아이디어는 부록을 참조하세요).

과제: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후견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장을 함께 읽고 적어도 10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매일 목주를 적극적인 희생적 선물로 마리아에게 바치십시오. 마리아는 이를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매일 아침 봉헌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를 위한 매일의 봉헌 기도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원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 주십시오. (33)

### 마지막 서약

성모 마리아여, 저, \_\_\_는 매일 아침 당신을 내 마음속에 충실하게 맞이하고, 당신의 가장 성스러운 목주의 일부를 매일 기도할 것을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머니여,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하느님의 마음에 따라 사랑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제 개인 스승으로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 그의 놀라운 사랑

오순절날 사도들은 “놀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2:7) 하느님을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성 요한 바오르 2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그 깊은 놀라움의 이름은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교라고도 불립니다. (구세주 호미니스 1979년)

## 봉헌의 날

20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정식으로 축성할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족이나 후견인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견진성사 클래스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은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진성사 직후 또는 성모 마리아에게 특별한 다른 날에 행하십시오. 성모 마리아의 축일은 언제든지 좋은 후보이며 부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후견인과 가족, 수업 받은 친구들과 함께 20주차의 위에서 말한 영원한 도움의 성모 봉헌 기도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모두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봉헌 날짜를 책에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이 책을 평생 기도서로 보관해 주십시오. 이 책에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경험하는 미래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평생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 서명 및 날짜:

후견인:

## 봉헌 날 이후

성도들은 매일 마리아에게 허락을 받겠다는 결의를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마리아에게 짧은 봉헌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택했습니다. 이는 매일 성모 마리아에게 포용해 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록에 실린 몇 가지 봉헌 기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매년 같은 기념일에 마이클 게이틀리 신부가 제창하는 “모닝 글로리의 33일간”(1)과 같은 훌륭한 33일간의 봉헌 프로그램을 통해 마리아에게 다시 봉헌합니다.

## 작별

후보자와 후견인 여러분, 견진성사의 여정 동안 성모 마리아와 성령께 다가가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 성 바오르, 우리 주님, 성 막시밀리안 콜베에 의한 작별의 순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그룹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졸업식 연설을 방불케 합니다. 매일 마리아에 대한 봉헌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연설들을 즐기고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당신께, 폴 크랜리 올림

### 모세의 작별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와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느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신명기 30:15-20)

###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작별 (성 요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요한복음 15:9-17)

###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5:3-12)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 에베소서 4:1-6 성 바오르의 작별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같은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 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같이 여러분도 한 희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성 막시밀리안 콜베가 전하는 작별

“마리아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때도, 어떤 예외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1)

## 부록

### 성 마리아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성 요셉에게 전하는 기도

성 요셉이여, 당신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명에 따라 마리아를 당신의 마음과 가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곧 갓 태어난 아들 예수님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마리아를 내 마음과 가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했던 것처럼 마리아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인생에서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신의 성가족을 지켰듯이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아멘.

### 마리아에게 꽃 바치기

어머니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꽃을 선물해 주면 기뻐합니다. 특히 어머니날, 발렌타인데이, 생일 같은 특별한 기회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이 진심이 담긴 선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꽃이 아무리 수수하고 단순한 것이라도, 설령 꽃이 핀 잡초라도 말이죠. 마리아는 이 선물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꽃은 오래 가지 않고 곧 시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녀의 마음의 헌신에는 자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매일 그녀에게 기도하고 허락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 성모마리아 그림과 성모마리아상 기리기

집 안에 마리아나 성가족의 그림이나 상을 두는 것은 매일 하늘의 가족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 앞에 자주 꽃을 놓아 예수, 마리아, 요셉과의 관계를 새로이 유지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의 가정에서는 12개월 동안 네 자녀 각각에게 마리아상을 회람하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마리아상을 다음 가족에게 주고, 전년에 받은 많은 축복을 나눕니다.

### 그룹 묵주의 특별한 가치

묵주의 기도는 미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룹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각 기도의 전반부를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이 주창하고 후반부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그룹이 주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신비에 더 집중하는 것을 돕고 성스러운 묵주에 대한 믿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 성모님께 드리는 영원한 기도 (45)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여, 당신은 하느님에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보살피 주십시오. 당신이 어린 예수를 사랑의 품으로 안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된 어머니가 되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인 당신을 언제든지 불러줄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헌신해주십시오. (45)

### 전통적인 매일의 봉헌기도 (24)

나의 여왕, 나의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을 당신에게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저의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저의 눈, 저의 귀, 저의 입, 저의 마음, 저의 온 존재를 아낌없이 당신에게 바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니, 나의 선한 어머니여, 당신의 소유물로 저를 지켜주세요.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께 드리는 기도 (33)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는 당신 사랑의 충만한 마음으로 저희를 원죄 없으신 당신 성심께 봉헌함으로써, 당신께 봉헌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진정으로 슬피하게 하시고, 성체께 대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여 언제나 천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삶을 봉헌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어, 이웃 안에서 그분을 뵈고, 그분께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 겸손(謙遜)한 봉헌(奉獻)으로 저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신 당신을 모범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함으로써,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아드님께 속하게 해 주십시오.

## 아침 봉헌 기도 (44)

오 예수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저는 온 세상의 미사성제와 일치하여 당신 성심의 모든 뜻을 위하여 오늘의 기도와 수고와 기쁨과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영혼의 구원, 죄의 속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 특히 교황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 신부 페런바흐 봉헌 기도(3)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에 몸을 맡기겠습니다. 저의 몸과 영혼, 저의 생각과 행동, 저의 생명과 죽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제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하느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결의를 관철하십시오.” (찰스 G. 페런바흐 신부, C.S.S.R)

## 성 돈보스코의 마리아를 위한 기도 (37)

오 마리아, 그리스도인의 든든한 도움이십니다! 당신의 발치에 다가가  
당신의 영원한 도움을 간청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가요. 지상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어머니 중에서 가장 애정이 깊은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필요로 할 때, 슬플 때, 특히 유혹에서 당신의 영원한 도움을  
제게 주소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당신의 끊임없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개심하게 하소서.  
당신의 수행을 통해 수도 생활에 많은 소명을 주소서.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여,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지상에서 당신에게 기도한 우리가 천국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소서.

## 십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 통회 기도 (37)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육적 자선행위  
(6)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혈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곤궁한 이에게 쉴 곳을 주는 것.  
병든 이를 문병하는 것.  
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는 것.  
죽은 이를 묻어주는 것.

영적 자선행위  
(6)

의심하는 이를 위해 상담에 응하는 것.  
모르는 이를 위해 진리를 알려 주는 것.  
죄지은 이를 타이르는 것.  
괴로워하는 이를 위로해 주는 것.  
악행을 용서해 주는 것.  
성가신 일을 인내로이 참아내는 것.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모마리아 축일 축하하기 (1)

성모 마리아는 일 년 중 많은 축일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한 자들은 이 날들을 특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가장 잘 알려진 축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5월 13일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
- 5월 3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7월 16일 카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8월 2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 9월 12일 동정 성모 마리아 기념일
-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11월 21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12월 12일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 12월 25일 성탄절 대축일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의 축일을 축하하는 것,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특히 묵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삶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 나날이 강해지기를.”(성 요한 바오르 2세) (12)

### 성모님께 드리는 호소 (44)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전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 하였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서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의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 마리아의 노래 (44)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 평시삼종경 (1)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킴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성 보나벤티)

“평시삼종경의 기도는 묵주처럼 모든 그리스도교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인 가족에게 하루 중 용기와  
자신감을 찾기 위한 영적 오아시스여야 합니다.”

(요한2세) (12)

수호천사 기도

(37)

하느님의 천사여, 나의 수호자여,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에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날에도 내 곁에 있어  
빛과 경계와 통치와 인도를 하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 (37)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 버리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 “BAR 높이기” 양심 검사

1. 먼저 **B**는 축복(**Blessing**)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와 성령과 함께 당일을 돌아보며, 모든 축복과 모든 십자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음으로 **A**는 묻는 것(**Ask**)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잘못을 특정하고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3. 마지막으로 **R**는 결의(**Resolve**)를 의미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기로 결심하고 통회 기도를 올립니다.

매달 성찬식 고해성사에 가주세요.

매일 5분 동안 이 검사를 잘 그리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화되며 하느님의 자비에 완전히 젖을 수 있습니다.

## 성령의 12가지 열매(39)

- 1) 사랑(**Charity**). 성령은 사랑이며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우선시한다는 사랑이라는 신학적 미덕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이 사랑의 결합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을 위해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2) 기쁨(**Joy**). 하느님을 위해 살며 언젠가 지금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 때 행복이 실현됩니다.
- 3) 평화(**Peace**).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게 질서와 맑은 양심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관계, 그리고 삶의 의무에도 질서를 부여합니다.
- 4) 인내(**Patience**). 하느님에게 다가가면 다른 모든 것이 정돈되고 인내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심이 강한 것입니다.
- 5) 자비심(**Benignity**). 이는 타인에 대한 친절함의

미덕입니다.

- 6) **자애(Goodness).**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노력합니다.
- 7) **견인(Longanimity).**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내심 있게 수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충실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 8) **유화(Mildness).** 이는 화를 내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덕적 미덕인 절제를 줍니다.
- 9) **신앙(Faith).**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적 미덕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시된 진리에 오를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절대적인 권위로 간주합니다.
- 10) **공순(Modesty).**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과 복장이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공순에 대한 외적인 징후입니다. 이는 성적인 일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의 순수함을 우선시합니다.
- 11) **절제(Contineny).** 이는 결혼생활에서 한쪽 배우자가 질병 때문에 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성욕이나 다른 욕구를 신성한 방법으로 제어하는 미덕입니다.
- 12) **정결(Chastity).** 이는 사제, 수도자 또는 봉헌 생활을 하는 평신도로서 하느님에게 온전히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소명은 생활에서 정결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결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으로 순결한 은혜를 줍니다.

### 성신칠은(39)

1. **슬기(Wisdom).**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신성한 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통달(Understanding).** 가톨릭 신앙, 성경, 성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의견(Counsel).** 의견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는 타인이 영적 및

물질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4. **굳셈(Fortitude).** 굳셈은 인내하고 용기를 갖기 위해 필요한 힘입니다. 선을 위해 박해나 역경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지식(Knowledge).** 지식은 우리가 하느님,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을 하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효경(Piety).** 이 은사는 하느님을 섬기며 거룩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을 보는 사랑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7. **주를 두려워함(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벌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 목주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15**가지 약속 (38)

1. 나에게 목주기도를 성실히 바치는 모든 이들은, 표시있는 은총들을 받을 것이다.
2. 나는 목주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특별한 보호와 아주 큰 은총들을 약속한다.
3. 목주기도는 지옥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악을 쳐부수고, 죄를 없애고, 그리고 이단을 패배시킬 것이다.
4. 목주기도는 덕과 선행을 풍성케 할 것이며;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를 얻게 할 것이다; 목주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허무함으로부터 이끌어 낼 것이며, 그 마음을 영원한 것에 대한 바램으로 들어올릴 것이다. 오, 그 영혼들은 이렇게 성화될 것이다.
5. 목주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나에게 의탁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6. 매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자는 누구든지, 불행에 의해서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하느님의 심판 때에 그를 벌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가 죽게 될지라도, 그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7. 묵주기도에 대한 참된 신심을 지닌 자는 누구든지, 성교회의 성사의 은총없이 죽지 않을 것이다.
8.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충실한 자들은 살아있을 때나 임종시에 하느님의 빛과 풍부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임종시에 그들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받을 것이다.
9. 나는 묵주기도에 열심했던 자들을 연옥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10. 묵주기도에 충실한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11. 너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것은 모두 얻게 될 것이다.
12. 거룩한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모든 이들은 필요시에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13. 묵주기도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은 살아 있을 때나 임종시에 하늘의 모든 성인들을 중재자로 소유할 수 있음을 하느님이신 나의 성자로부터 약속 받았다.
14.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든 이들은 나의 아들이며, 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다.
15. 나의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위대한 표시이다.

## 테레사 수녀의 의무 목록(8)

마리아의 의무	나의 의무
1. 그녀의 정신과 마음을 바치기 위함이다.	1. 내가 가진 것,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선물로 주는 것.
2. 나를 소유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바꾸기 위함이다.	2.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것.
3. 나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하며 계발하기 위함이다.	3. 그녀의 성령에 대한 응답성.
4. 기도와 찬양의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다.	4. 기도에 대한 충실함.
5. 나의 성화에 대한 책임이다.	5. 그녀의 중재에 대해 믿을 것.
6.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다.	6. 그녀의 정신을 본받을 것.

7. 나의 정신적 및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7. 그녀에게 항상 의지할 것.
8. 나와 나의 행위를 정화하기 위함이다.	8. 의도의 순수함, 자기부정.
9. 나, 나의 기도, 중재, 은총을 처분할 권리.	9. 왕국을 위해 그녀와 그녀의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
10. 내안에서 그리고 내주변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완전한 자유.	10. 그녀의 마음에 들어가 그녀의 내적인 생활을 공유할 권리.

### 묵주의 스무 신비

신비	환희	빛	고통	영광
1단	수태고지	예수의 세례	동산에서의 고뇌	부활
2단	방문	가나의 결혼식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천국으로의 승천

3단	예수의 탄생	왕국의 선언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성령의 강림
4단	그리스도의 봉헌	변형	십자가를 지고 계신	성모 승천
5단	성전에서 예수님 찾기	만찬	십자가 못박히심	하늘의 모후님 마리아의 대관

### 세계의 봉헌 165

성 막시밀리안 콜베는 온 세상을 원죄 없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실행할 수 있을까요? 불과 **33년** 만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의 견신 후보자 한 사람과 후견인 한 사람이 성심의 성화를 행하였고, 두 사람 모두 매년 다른 사람 한 명을 이 과정으로 이끌 것을 약속한다고 가정하면 **33년**에 **85억** 명의 영혼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신 것과 같은 몇 년 안에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년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을 하나씩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이 멋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님도, 그리고 그녀의 아들 예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답은 계산기에 숫자 **2**를 입력하고 그 숫자를 **33**번 곱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세요!

세레 서약 갱신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후보자: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후보자: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후보자: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후보자: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후보자: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마이클 이 게이틀리 신부, MIC, *33 Days to Morning Glory*, (Marian 출판물, Stockbridge MA) 2011년.

2. USCCB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3. 찰스 지 페렌바흐 신부, CSSR, *Mary, Day by Day*, (Catholic Book 출판사, 뉴저지주) 1987년.
4. 교황 비오 12세, 마닐라 대주교에게 보내는 편지 “*Philippinas Insulas*”: AAS 38 (1946). 419쪽.
5. 요한 바오르 2세의 희망과 영감의 말 (E P Dutton 편, 1995년).
6. USCCB 웹사이트 [www.usccb.org](http://www.usccb.org), 가톨릭교회의 교리문답, 2021년.
7. 요한 바오르 2세, *Theotokos, Woman, Mother, Disciple*, 2000년.
8. 조셉 랭포드 목사, MC, *In the Shadow of Our Lady*, 2007년. 78쪽.
9. 성 요한 바오르 2세, *Redemptoris Mater*, 1987년 3월.
10. 원죄 없이 잉태의 마리아 신부회, *Pray the Rosary Daily*, Marian 출판물, 2015년.
11. <https://www.goodreads.com/quotes>.
12. 돈 에이치 캘러웨이 신부, MIC, *Rosary Gems, Daily Wisdom on the Holy Rosary*, (Marian 출판물) 2015년.
13. 성 토마스 아퀴나스, *Explan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www.ewtn.com/library](http://www.ewtn.com/library).
14. 성 알폰소 리구오리, *The Glories of Mary*, Liguori Publications, 2000년, 401쪽.
15. 성 루이 마리 드 몽포르, *True Devotion to Mary*, (TAN Books, 일리노이 주) 1985년.
16. 바티칸 II 문서 *Lumen Gentium*, 1964년.
17. 헨리 나우웬, *Ministry and Spirituality* 1996년.
18. 성 토마스 아퀴나스, *The Law of Hospitality*, 1225-1274
19. 성 요한 바오르 2세, Homily, 1982년 4월 30일
20. 성 막시밀리안 콜베, *Aim Higher*, (Marytown 출판사), 2007년. 134쪽.



21. 폴턴 J. 신 추기경, *The World's First Love*, 2010년.
22. 성 요한 바오르 2세, *ROSARIUM VIRGINIS MARIAE*, 2002년.
23. A.B. 칼킨스 신부, *The Alliance of the Two Hearts & Consecration*, Miles Immaculata, 1995년 12월, 389쪽.
24. *Raccolta*, #340. 1957년.
25. 성 루이마리 그리그농 드 몽포르, *The Secret of the Rosary*, Tan Books, 1993년.
26. 스콧 한, *Back to the Garden of Eden, Unearthing God's Covenant with Mankind*, 2015년.
27. <https://www.catholicyc.ca/blog>.
28. 브란트 페트리, *Jesus and the Jewish Roots of the Eucharist*, DVD, 2016년.
29.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설교, *The Cross Exemplifies Every Virtue*, 1225-1274년.
30. [www.https://aleteia.org/2016/02/26](http://www.https://aleteia.org/2016/02/26).
31. 성 요한 보스코, *Prescription #6*, [www.americaneedsfatima.org](http://www.americaneedsfatima.org), 2021년.
32. 오멸 베스텐도르프, 번역, *Ubi Caritas*, 1961년.
33.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http://www.olphcc.org/OLPH\\_Novena.pdf](http://www.olphcc.org/OLPH_Novena.pdf).
34. 성 요한 바오르 2세, 교황 교서, 1988년.
35. 브래드 쿠퍼, *The Pilgrimage of the Holy Rosary*, 2017년.
36. 성 요한 바오르 2세, *General Audience*, 2000년 1월 12일.
37. [www.https://www.ewtn.com/catholicism/devotions](http://www.https://www.ewtn.com/catholicism/devotions).
38. 성 도밍고스와 복자 알라노, [www.americaneedsfatima.org.2021](http://www.americaneedsfatima.org.2021).
39. [www.http://www.traditionalcatholicpriest.com](http://www.http://www.traditionalcatholicpriest.com), 2021년.
40. [www.https://stmarymiddletown.com/ministries-1](http://www.https://stmarymiddletown.com/ministries-1).
41. 리처드 루니 신부, SJ, *Let's Pray (Not Just Say) the Rosary*, (Liguori Publications, MO), 2007년.
42. 성 파우스티나, *Diary of St. Maria Faustina Kowalska*, 742 쪽,

Marian 출판물, 2006년.

43. 아서 비 컬킨스, Totus Tuus, 2017년.
44. *Challenge*, Loyola University 출판물, 시카고, 1958년.
45. [www.https://www.catholic.org/prayers](https://www.catholic.org/prayers).
46. 에드워드 스리, *Men, Women, and the Mystery of Love*, Franciscan 미디어,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2015년.
47. 스티븐 알 코비,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Simon & Schuster, 뉴욕, 1989년.

## 감사의 말

다음과 같이 저의 편집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조셉 호 신부, **C.S.S.R.**, 마리우스 비트코브스키 신부, 레오 뷔치크 대주교, 브라이언 크랜리, 린 램지, 그렉 브라운, 조 치르코, 샌드라 위싱거. 저를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트 반다비어, 댄 나이바르, 존 화이트, 마이크 라티노, 조지 헤일, 스티브 솔리스, 토니 스토츠, 짐 시벤탈, 엘 발린스키, 진 오시나, 바브 크라우스, 테레사 모랄레스, 팻 히메네즈, 브루넬라 울렌도프, 데이비드 다무어, 마티아스 시프니에프스키, 아폴로니아 아나코르, 앤 베틱거, 델리아 크레시니, 토미와 지나 아라칼, 앤 라방지, 딕과 제이 그리스월드. 표지 디자인을 담당해 주신 마리 플래니건 및 팻 크랜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모든 어머니들, 특히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던 첫 번째 목주를 주신 어머니 헬렌 테레사 크랜리, 그리고 선교를 위해 수백 개의 목주를 만들어 주시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신 장모 마가렛 메리 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훌륭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이신 아내 낸시와 우리 아이들인 크리스틴, 브라이언, 메리, 매튜, 그리고 6명의 아름다운 손자들에게 바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폴라드의 위대한 성인 세 분께 바칩니다: 성 막시밀리안 콜베, 성 마리아 파우스티나 및 성 요한 바오르 2세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승리와 통치를!

## 저자 소개

### 폴 E. 크랜리

폴은 1971년 자비어 대학에서 화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4년 켄터키 대학에서 화학과 경영학 석사로 졸업했다. 40여년간 보이스카우트, 어른입교예식서, 견신례, 고교CCD, RCIA, 청년부, 라이프 인 더 스피릿, Christ Renews His Parish, ACTS, Kairos 교도소 미니스트리 등 성인 수련 사역을 포함한 교구 종교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봉사 교사를 맡았다. 폴은 이 기간 동안 견신식 후견인을 7회 맡았다. 지난 30년간 매년 개인적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헌신하여 33일간의 헌신 프로그램을 통해 300명 이상을 인도했다. 폴과 낸시는 결혼한 지 48년이 되었고, 4명의 아이들과 6명의 손자가 있다.

4E:

NOTE:

NOTE:

## 목주 기도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구원을 비는 기도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 성모 찬송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운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조.

